

박 대통령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있다. 왼쪽부터 김흥국 하림 대표, 차종순 전통문화 예술인, 김성주 의원, 오경숙 플라스마 기술연구센터 박사, 이상운 효성 부회장, 김진수 센터장, 박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미 슈가팜 대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윤덕 의원. <관련기사 10면> /연합뉴스

스마트폰 중저가 시대 자리잡나

팬택 출고가 내리자 삼성·LG전자도 뛰어들 채비
제조사-점유율, 통신사-가입자 확보위해 총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스마트폰 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섰다.

100만원을 육박하던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50만~70만원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팬택의 출고가 인하 영향도 크지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에서 핵심 기능만 갖추고 있는 중저가형 제품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2015년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가격인하 선봉장 팬택

지난주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바람은 팬택이 주도했다.

지난주 팬택은 KT와 LG유플러스를 통해 판매한 베가아이언2의 출고가를 43만1200원에서 35만2000원으로 변경했다. 가격인하 소식과 함께 반나절만에 완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팬택의 돌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1일 SK텔레콤 전용 스마트폰 '베가 팝업노트'를 출고가를 35만2000원에 판매했다. 당일 초도 물량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LG전자도 가격인하 카드를 내세우는 모습이다. KT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출고가 89만9800원의 LG G3를 10만원 가량 내린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보조금 인상 정책과 맞물리면서 나온 것이다.

국내 제조사의 경우 샤오미와 화웨이 등 거대 자본을 앞세운 중국 단말기 제조사가 저가형 제품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통신사들은 최근 단통법으로 얼어붙은 휴대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조사 입장에서 자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산을, 통신사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착한 가격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2015년 삼성·LG전자 '중저가 주력'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5년 스마트폰 시장 전략을 가격 경쟁력에 맞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스마트폰 모델 수를 현재보다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까지 줄일 방침이다. 지난17일 이명진 삼성전자 전무(IR팀장)는 미국 뉴욕 웨스틴그랜드센트럴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 '삼성 투자자 포럼 2014'에서 "경쟁력을 높인 제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모델 수 감축을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모델 수 감축은 중국에서 현지 업체들의 저가형 제품에 밀린 스마트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갤럭시A3·A5'등 보급형 갤럭시 A시리즈를 앞세워 중국·인도 등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LG전자 역시 저가형 제품인 'L시리즈'로 중저가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태세다. 여기에 파이어폭스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모델명 'LGL25' 스마트폰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품의 OS는 모질라의 파이어폭스가 탑재될 전망이다. 파이어폭스는 안드로이드가 적용된 스마트폰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LG전자는 파이어폭스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앞세워 중저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샤오미나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올해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선전한 이유가 자국 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경쟁에서 외산 업체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라며 "올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이 내년에는 중저가형 제품 생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수능 2개 문항 복수 정답 처리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 수능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김성훈 평가원장이 24일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평가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과학Ⅱ 8번은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④번 외에 ②번도, 영어 25번 문항 역시 ④번과 함께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2015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작년과 같은 문항 오류를 막기 위해 출제와 검토 과정을 보완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또 흠결을 가진 문항을 출제하게 돼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평가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자진 사퇴를 밝혔다.

교육부는 출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우기자 cyclone@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김무성 대표, 북한인권 관련 NGO단체 면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북한인권 관련 NGO 단체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서정가제 '제2 단통법' 우려 목소리

기자 수첩
김 수 정 <생활유통부 기자>

"아이들 때문에 책은 계속 구매하겠지만 예전만큼 많이 구매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난 20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 일대 서점에서 만난 한 주부는 한숨을 내쉬었다. 개정 도서 정가제는 과도한 할인을 막아 도서 생태계를 바로잡고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많아 출판 업계조차도 실효성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인 전쟁을 막고자 책값 할인 10%에 적립 등 간접할인 5%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했는데 유명무실한 문구들로 이뤄져 도서 가격만 올리는 '제2의 단통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 서점은 구매자들에게 줄 수 있는 적립과 할인 등의 혜택이 축소됐지만 문제부가 허용한 무료배송,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그대로 진행 중이다. 결국 경품·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줄 수 없는 동네 서점들의 고민은 더 커졌고, 꼼수 할인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돼 버렸다.

게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은 재정가를 통해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구간을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무색케 했다.

최근 출판·유통 업계 등이 모여 자율협약을 맺었지만 공급률 차등 적용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말 많고 탈 많은 도서정가제가 당초 취지한 것과 같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허점들을 신속하게 보완하며 출판 유통 업계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뉴스&뉴스

軍, 사이버전 '군사작전' 공식화 추진

●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국방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윤회 감찰 실시한 바 없다"

●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거명되고 있는 정윤회씨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였다가 돌연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2014년 11월 24일자 세계일보의 '靑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정윤회씨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무위, 26일 '김영란법' 논의 재개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4일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뒤 26~28일과 12월 1일 나눌 연속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순서로 계류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설득 불발

조세소위 "연내 처리… 일부 개신교 반대에 이해 구하는 방법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각계 대표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교계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기독교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설득에는 실패했지만, 기재위는 위원회 차원의 설득 노력을 계속해 연내 소득세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소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소득 항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종교계에 설명드렸고, 천주교와 불교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속 견지했다"며 "많은 개신교계에선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기국회내 과세가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이 잘 전달 안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전달하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갖는 특성이 있어 그 분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질지 안될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논의를 계속해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반대하는 종교계를 설득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조세소위 위원들은 간담회에 전원 불참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롯데월드타워 방문한 국민안전특위 전병헌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건설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장 "예산안 처리 시한 지키겠다"

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 연쇄 회동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및 부수법이 계류 중인 해당 상임위원장단과 연쇄 회동을 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이번 예산안이 여야 합의 속에서, 헌법도 지키는 그런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꼭 합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가치"라며 "19대 후반기 국회를 운영하는 데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장의 뜻을 잘 받들어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앞서 정 의장과 회동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 처리 일정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9일로 미루자고 건의,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 처리가 옳은 길"이라며 "합의 처리해야지 일방 처리하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합의로 9일까지 처리하면 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그 것은 예산 부수법이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으로 보건데 지방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으로 하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외통위, 여야 제출 북한인권법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2005년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그간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조현정기자

방산업체 불법 취업 예비역 장성·영관급 5명 적발

주 2일 근무하고 연봉 1억

퇴직후 정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예비역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일주일에 불과 1~3일만 일하고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무기체계 획득 관련 분야에 근무하다 2008~2012년 퇴직한 군인 가운데 서류상 방산업체에 재취업하지 않은 대령 이상 계급 퇴직자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356명 가운데 5명이 취업제한 방산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령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뒤 민간 업체에 재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뻔하자 아예 취업 사실 자체를 숨겼다.

이들 5명 가운데 해군 예비역 준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 퇴직한 뒤 같은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서 한 방산업체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매월 350만원의 월급에 활동비까지 8300여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군 예비역 대령 B씨는 2006~2010년 방위사업청 팀장을 맡으면서 총괄하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와 퇴직 후인 2011년 1월 기술자문역으로 재취업한 뒤 지난해 9월까지 월 300만원의 월급과 활동비 등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2명을 비롯해 감사 결과 적발된 5명은 모두 월급과 활동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근무는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사흘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서울광장에 설치되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크리스마스를 한달 남짓 앞둔 24일 오후 서울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카트' 소재 집회 참가자 무죄

영화 '카트'의 소재가 된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시위 참가자들에게 7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농성 시위가 이뤄지고 있던 홈에버 월드컵몰점을 응원차 찾았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7월 14일 0시 10분께 현행범으로 연행된 후 기소됐다.

1심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밤 12시로부터 '10분' 가량 지나고서 연행됐다는 점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작년 8월 "김씨 등이 0시 이후 야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 등을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한 점을 지적하며 "김씨 등을 포위하기 이전에 3회 이상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육식공룡 '온전한 화석' 국내 첫 발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의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 보존 상태가 좋은 수각류(獸脚類) 공룡 화석 1점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수각류는 티라노사우르스처럼 두 발로 이동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지닌 육식공룡이다. 수각류 화석이 두개골까지 포함한 온전한 골격으로 발견되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연합뉴스

서울대, 현 고1부터 사회과학대 학과별 선발

서울대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7학년도부터 사회과학대학 입학생을 학과별로 나눠 뽑기로 했다.

서울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약 30%를 사회과학계열로 광역모집하는 사회과학대학을 학과제 모집으로 변경키로 하고 학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사회과학대 안에는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등 8개 학과가 있다.

사회과학대는 정원의 70%가 입학 전 추후 전공할 학과를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전공예약제, 30%는 1학년 때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2학년이 되면 학과를 결정하는 광역모집으로 뽑고 있다. 그러나 광역모집으로 들어간 학생 중 절반 이상이 경제학부에 지원하는 등 특정 학과 쏠림현상은 물론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가려고 1학년 때부터 학점을 관리하느라 지나치게 경쟁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앞서 서울대는 2002년 모든 단과대를 광역모집으로 뽑았으나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자연과학대, 공과대, 생활과학대, 농업생명과학대, 사범대는 2011년 학과제 모집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인문·사회과학대는 광역모집을 유지하는 대신 2012년에 전공예약제를 도입했다. /유주영기자

서울 공립 유치원 행정실무사 둔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공립유치원에 행정업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실무사가 배치된다.

또 2016학년도부터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해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조정,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춘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시내 공립 유치원 197개원 가운데 일단 15곳에 교무행정실무사를 시범 배치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실무사 배치에는 2억6388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무행정실무사는 유치원 교무실에 배치돼 누리과정 학비 지원 업무,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행정업무, 정보공시 업무 지원 등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또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조정해 2016학년도부터 만 3세 유아는 학급당 16명 이하, 만 4세는 학급당 22명 이하, 만 5세는 26명 이하로 조정한다.

유치원의 1일 수업 시간도 내년부터는 유치원마다 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개명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주영기자

검찰, 유병언 부인에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이 3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더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최근 권씨의 횡령 혐의를 횡령 방조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지만 이날 기존 죄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씨 남매의 결심공판에는 80여 명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가 몰려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주영기자

신촌 명물거리도 노점 개선사업 추진

서울 서대문구가 연세로에 이어 신촌 명물거리에서도 노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대문구는 24일 "명물거리에는 시설이 낡은 노점이 많아 작년에 신판매대(스마트 로드샵.Smart Roadshop)로 정비된 연세로와 비교되고 있다"며 "연세로와 같은 스마트 로드샵을 제작·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물거리는 신촌역에서 연세대를 잇는 연세로 중간지점에서 경의선 신촌역 부근까지 약 350m를 말한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고, 재산총액이 2억원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 선정된다. 단,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에 대해서는 3년간 자격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판매대 제작·설치 비용은 서대문구가 부담하지만, 구는 운영자에게 도로 점용료와 판매대 임차료를 부과한다. 운영자들은 한 달에 15만원 정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기존 노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6개의 신판매대를 배정했으며, 이들 판매대는 내달 21일 거리에 설치된다. /유주영기자

metro Russia



metro Brazil



리우 '미의 여왕' 컨테스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퀸' 선발 대회가 열린다. 리우 시는 2015년 3월 1일에 맞이하는 45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리우 시를 대표하는 미인을 뽑는 '미의 여왕' 컨테스트. 참가 자격은 18~30세, 최소 165 cm의 신장을 가진 여성이어야 한다. 66명의 후보자 중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33명은 내년 1월 17일에 있을 대회에서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된다.

metro Colombia



소녀 뱃속에 '마약 알약' 100개

11세 소녀에게 '마약 캡슐' 100여 개를 삼키게 한 뒤 이를 밀수하려던 끔찍한 사건이 콜롬비아에서 발생했다. 최근 남부 칼리의 병원 응급실로 여자아이가 이송됐다. 검사 결과 소녀의 몸 안에서 104개의 코카인 캡슐이 발견됐다. 소녀는 캡슐 적출 수술을 받은 뒤 현재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녀가 아버지를 만난 뒤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파악,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metro HongKong



'모태 솔로' 이유가 유전자 때문이라고?

'모태 솔로'인가. 연애를 잘 못하는 이유가 타고난 유전자 때문일지 모른다.

최근 중국 베이징대학 연구팀이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HTA1라는 유전자가 연애 등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팀은 대학생 약 600명의 머리카락을 수집해 5-HTA1를 분석했다. 5-HTA1는 C형과 G형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G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C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보다 솔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형의 60%가 이성 교제 경험이 없으며 C형의 비율은 50%였다.

연구에 따르면 G형 유전자는 대뇌에서 좋은 감정을 형성하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의 농도를 낮춘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불린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분이 우울해져 슬픔을 느끼거나 쉽게 불안해하고 짜증을 낸다.

G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고 쉽게 헤어지는 경향이 있다.

베이징대 연구원은 "비관적인 정서와 신경질적인 성격은 연애를 시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G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연애에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내가 솔로인 이유를 드디어 찾았다", "G형 유전자 때문에 사랑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리=조선미기자

관능미 물씬~ 세미누드 달력

이탈리아 타이어 업체 피렐리 제작 과정 공개… 러시아 모델 2명 포함 '눈길'



최근 이탈리아 타이어 업체 피렐리의 세미누드 달력 제작 과정이 공개됐다. 달력의 각 페이지를 장식한 열두 명의 미인 가운데 러시아 톱모델 나탈리아 보디아노바와 사샤 루스도 포함, 눈길을 끈다.

피렐리 달력은 전 세계 주요 고객과 유명인사를 위해 한정판으로 제작된다. '캘린더 걸스'라는 제목의 제42호 피렐리 달력은 지난 5월 뉴욕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올해는 미국의 유명패션 사진작가 스티븐 마이젤과 패션지 보그 프랑스의 전 편집장 카린 로이펠드가 스타일리스트로 참여했다.

특히 2015 피렐리 달력은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플러스 사이즈 모델 캔디스 허파인이 4월 페이지를 장식, 화제를 낳았다. 허파인은 "피렐리가 이번 프로젝트에 나를 포함시킨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보디아노바와 루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료 모델, 스태프와 일하게 돼 기쁘다"며 "올해의 피렐리 모델로 선발돼 영광"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렌즈의 마법사'로 불리는 마이젤은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았다"며 "모델의 각기 다른 매력과 감성이 잘 표현된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의상과 액세서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모델의 개성과 매력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신경썼다"며 "관능적이면서도 생기 발랄한 모델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렐리 달력은 1964년 사진작가 로버트 프리먼과의 작업으로 처음 제작됐다. 중동의 오일쇼크와 세계 경기 침체로 한때 발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피렐리는 매년 200만 달러(약 22억원)의 비용을 들여 2만~3만 부의 달력을 제작, 유명인사와 고객에게 선물하고 있다.

/에드워드 톰슨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두 지붕 한 가족' 新 협업형태로 성공

스무디킹코리아·모그커뮤니케이션즈 클라이언트사와 대행사간 상생이뤄

식음료 브랜드인 스무디킹 코리아가 최근 스토리텔링을 담은 이색적인 광고 캠페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뒤에는 국내 유명 기업들의 광고와 마케팅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인 모그커뮤니케이션즈가 있다. 스무디킹과 모그커뮤니케이션즈의 새로운 협업 패러다임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스무디킹의 새로운 브랜드 영상 광고인 'Here I Am 스무디킹'은 모그커뮤니케이션즈 측이 전문 브랜드 컨설팅 파트너사로서 스무디킹의 브랜드 알리기와 스무디킹의 메뉴와 메뉴 보드를 모두 개편하는데 참여했다.

또 매장 인테리어를 기획하는 등 판매부터 홍보·마케팅 전략을 맡고있는 스무디킹의 핵심 부서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해당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고 한다.

스무디킹은 영양 밸런스를 갖춘 건강한 개인 맞춤 푸드, 즉 '퍼스널 푸드(Personal Food)'로 만들어진 스무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고자 지난 여름 신제품 런칭과 대대적인 메뉴 개편을 비롯해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서 2030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공효진 씨를 모델로 해 세 편의 시리즈 광고를 선보였다.

해당 광고는 2030여성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라는 슬로건으로 제작됐다. 티저 형식의 첫 번째 광고는 공효진의 목소리만 등장해 "가끔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스무디킹이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광고인 '가끔은 바빠도 괜찮아' 편과 '가끔은 화내도 괜찮아' 편에서는 공효진이 직접 등장해 특유의 자연스럽고 유쾌한 매력을 발산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소비자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가끔은 화내도 괜찮아'편에서 공효진이 5일 동안 전화를 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응…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그럼 영원히 까먹어버려!"라고 돌직구를 날리는 내용은 많은 여성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줬다는 후문이다.

스무디킹 코리아의 김주영 이사는 'Here I Am 스무디킹' 브랜드 광고에 대해 "스무디를 '퍼스널 푸드'로 인식 전환하는 것이 이번 광고의 목적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고, 그에 맞게 함께 벌인 제품 리뉴얼도 큰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브랜드 리뉴얼과 영상 광고 방송 후 9월 자사의 매장 방문객이 전년보다 26% 증가하면서 매출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며 캠페인의 성공적인 결과에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제작한 모그커뮤니케이션의 정원희 부대표는 "이번 브랜드 광고와 함께 그 이전에 진행된 브랜드 리뉴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무디킹의 마케팅팀 역할을 수행하며 마케팅은 물론 홍보·세일즈 전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또 "그러나 마케팅 전략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현장에서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며 "스무디킹의 전 임직원이 휴일도 반납하는 등 적극적으로 브랜드 리뉴얼 캠페인에 동참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스무디킹 브랜드 캠페인의 성공은 클라이언트사와 대행사 사이 상생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업 패러다임을 보여준 훌륭한 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스무디킹 김주영 이사(왼쪽)와 모그커뮤니케이션즈 정원희 부대표가 협업을 통해 성과를 거둔 스무디킹의 브랜드 리뉴얼과 영상 광고 제작 과정의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스무디킹 코리아 제공

소장 유물 기증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코리아나 화장품은 유상옥(사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장해온 토기와 도자기류 등 29점의 화장·농업관련 유물을 충남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에 있는 농업박물관에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회장이 기증한 유물 중에는 삼국시대 '토기장경호'와 조선시대 백자 제기 등이며, 희소가치가 높은 백자 떡살도 있다.

유회장은 코리아나 화장품 문화사업의 하나로, 2003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화장 박물관인 '코리아나 화장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pjw@

"커피는 축복입니다!"
성훈식 빈브라더스 대표의 무한도전은 진행중

사람이야기

지난 주말 서울 코엑스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전문 전시회 '서울카페쇼'가 열렸다. 커피와 관련된 32개국 52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룬 행사장에 들어선 순간 그윽한 커피 향기 대신 '테크니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이들이 쉴 새 없이 커피를 만들고 시연 행사를 하는 한 부스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커피 하나에 목숨을 건 성훈식(사진) 빈브라더스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 2명과 커피 사업을 시작했어요. 공동 대표지만 서로 장점과 잘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맡은 업무도 달라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인터뷰는 인물이 좋은(웃음) 제가 하게 됐어요."

긴장한 빛 없이 신나는 듯 말하는 그가 먼저 건넨 얘기다. 성 대표는 서울대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커피 사업을 시작했다. 원래는 또래라고 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고민을 먼저하고 스터디 카페를 운영했지만 곧바로 커피 사업에 발을 내민 것이다.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지만 식음료, 특히 높은 질을 자랑하는 커피를 쉽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커피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좋은 커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자'라는 뚜렷한 목표를 세웠어요. 좋은 커피라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커피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좋은 원두를 찾고 테크닉을 익히고 경험을 쌓게 됐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된 경우였다. 원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사업이었지만 이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발로 뛰며 커피를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결국 이것이 그들의 강점으로 이어졌고 노하우가 생기면서 커피, 그리고 국내 커피 시장과 산업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노력하는 만큼 이루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들어맞은 셈이다.

"카페에 원두를 공급하는 B2B 사업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보다 큰 계획과 꿈을 세우면서 직영점도 만들었고 말이죠. 지난해에 처음으로 카페쇼에 참여했는데 부스에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카페 창업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더 연구하게 된 것 같아요."

현재 빈브라더스는 원두 유통부터 머신 판매, 아카데미 사업부까지 커피 사업 전반에 걸친 아이템과 개인 카페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카페쇼를 통해 자신을 찾은 소비자가 필요한 부분이 창업이라는 점을 깨닫고 창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하는 아카데미 사업 시스템도 완성된 것이다.

또 이들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이 맛있는 커피를 먹는 날이란다. 자신들의 커피를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다는 열정 가득한 포부를 간직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은 꿈 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젊다는 것은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이 얼마나 원하고 노력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커피가 저에게 축복인 것처럼 자신의 꿈에는 아낌없는 나무가 되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황재용기자 hsoul38@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1978.54	(+13.70)
코스닥	541.93	(−2.05)
금리(국고채 3년)	2.12	(−0.04)
환율(원·달러)	1112.30	(−1.50)



서울 휘발유 평균가 1700원대 최근 국제 유가가 연일 최저 기록을 경신하면서 서울 평균 휘발유값이 리터당 1700원대에 진입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최저가 주유소 모습. /뉴시스

전기레인지 시장이 뜨겁다

건강·안전 중시 경향에 낮아진 가격 한몫





최근 전기레인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전업체들이 신제품을 내놓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010년 19만대 수준이던 국내 전기레인지 시장 규모는 올해 30만대 안팎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50만~60만대까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스레인지 시장 규모는 2002년 200만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40만대까지 줄어들었다. 건강·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화재, 유해가스, 미세먼지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스레인지에 비해 전기레인지의 성장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내 중소업체들은 가성비 뛰어난 제품으로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밥솥 제조사들은 전기압력밥솥과 전기레인지가 같은 유도가열 방식의 인덕션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전기레인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찌감치 낙점했다.

리홈쿠첸의 경우 지난 2011년 1구 IH 전기레인지를 출시한 후 하이브리드 레인지, 3구 IH 전기레인지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국내 최초로 구축한 전기레인지 풀 라인업을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전기레인지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B2C 시장뿐만 아니라 B2B 시장 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최근 고급 아파트에 빌트인 가전 수주를 성공시키며 B2B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2015년 전기레인지 분야에서 매출 3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밥솥 1위인 쿠쿠전자도 전기레인지 분야에서 리홈쿠첸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하이브리드 에코 전기레인지'를 출시하면서 한국 환경에 최적화된 특성을 강조하며 외국산 제품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이 제품은 뚝배기부터 스테인리스 등 다양한 용기로 조리가 가능하며 보온기능과 우림기능 등을 통해 장시간 가열해야 하는 한식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최근 그릴과 전골이 모두 가능하도록 기존 1구형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을 출시하는 등 전기레인지 라인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기레인지 시장의 전통적 강자인 외국 업체들도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멘스는 국내 최초로 원형 화구와 다면 화구가 결합된 '콤비네이션 인덕션'을 선보였다. 다면화구는 조리기구의 면적을 자동으로 감지해 조리기구 크기만큼 가열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준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국세청, 서민지원 2조 투입

국세청이 내년에 서민 지원을 위해 약 2조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금액인 69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국세청은 내년들어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녀장려금도 9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에 연간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 이상에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3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할 경우 내년에 국세청이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하는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김민지기자



중국·유럽발 훈풍에 모처럼 웃은 코스피 코스피가 24일 중국과 유럽발 훈풍에 1980선까지 육박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70(0.70%)포인트 오른 1978.54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저소득·고연령 정리해고 급증

비자발적 이직자 1년 만에 10만명↑

지난해 정리해고 등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직한 직장인이 무려 7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소득층·고연령층에서 비자발적 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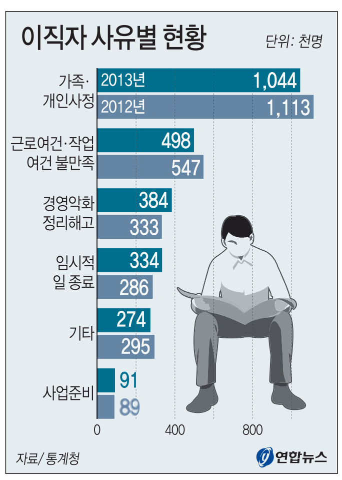
24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소 취업자 2493만명 가운데 이직 경험자는 263만명으로 조사됐다. 이직 비율은 10.8%로 2011년 11.2%, 2012년 11.1% 등 3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직 사유를 보면 가족·개인사정이 104만4000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여건·작업여건 불만족이 49만8000명(20.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비자발적 이직자가 전년에 비해 10만 명이나 증가한 7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이직자는 38만4000명, 임시적인 일 종료에 따른 이직자는 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의 정리해고가 부쩍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소득 2~4분위에서 모두 이직자가 1년 전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1분위 이직자는 32만2000명에서 39만1000명으로 6만9000명 증가했다.

1분위 이직자의 이직 사유 중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가 2만6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2.5배로 늘었다. 임시적 일 종료는 2만4000명 증가한 11만1000명이었다.



정리해고에 따른 이직자 비중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졌다.

30대 미만은 이직자의 9.7%(5만3000명)가 정리해고로 직장을 옮겼다. 하지만 이 비중은 30대 12.7%(8만7000명), 40대 19.0%(11만2000명), 50대 19.5%(9만2000명)로 높아졌다. /이국명기자 kmlee@

위해 상품 차단 안전 장터 5만곳

방사능 오염식품, 유해 장난감, 멜라민 과자 등이 사전에 차단되는 안심쇼핑 매장이 전국 5만 곳을 넘어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위해상품 차단시스템을 운영 중인 매장이 전국 5만354곳으로 집계됐다. 2009년 10월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 처음 구축된 이후 매년 1만여 개의 매장에 추가로 설치된 셈"이라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운영 매장에서 장을 보는 온·오프라인 소비자만 일평균 2193만 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가 매일 안심쇼핑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해상품으로 판정된 제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와인, 과자류, 순대, 족발 등 식품류에서 완구, 전기용품 등의 공산품까지 다양하며 한해 평균 600여개씩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기자 ze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365일 행복메신저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고객센터 1588-1900
www.epostbank.go.kr

보험 배타적사용권 제도 '유명무실'

협회서 따로 심의 암보험 등 관리 부실

issue&view
유사상품 어떻게…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지난 2001년 12월 금융권의 창의적인 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배타적사용권'이 보험업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상품과 크게 다를 수 없어 심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따로 심의해 암보험 등 제 3보험의 경우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생명·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총 86개(생보사 68개, 손보사 18개)다.

보험신상품 개발이익보호에 관한 양협회의 협정에는 배타적 사용권 승인을 위해서는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 ▲기타 기존상품과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가 필요한 상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금융상품에 독창성을 제고하기 힘들고 상대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대형사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어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 부정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보생명이 지난 10일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 '미리보는 내연금-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이 대표적 사례다. 연금개시시점에 최저보증금액과 적립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이 상품은 올 초 출시된 흥국생명의 변액연금보험 '딴딴한선택 (무)스텝업(Step-up) 변액연금보험'과 유사하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상품은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상품 심의 위원도 양 협회에서 회사의 보험종목별 상품개발담당 임원 또는 대표계리인(3인),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인),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1인) 등 협회 회장이 위촉하는 7인으로 구성 돼 상대적으로 협회에서 입김이 강한 대형사로부터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

생·손보협회가 배타적 사용권을 따로 심의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등 손보사만 취급하는 보험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암보험, 재난보험 등 제3보험의 경우 손보사와 생보사가 함께 판매를 할 수 있어 자칫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상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예를 들어 현대해상이 지난해 6월 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과받은 '무배당 계속받는 암보험'의 경우, 라이나생명의 암보험 특약과 유사하다.

이 보험은 2년 등 일정 기간 이후 재진단을 통해 이때 전이나 재발이 확인 시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특징으로, 라이나생명은 특약을 통해 동일한 보장을 해주고 있다.

3개월과 6개월인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휴대폰·냉장고 등 제조품이 광고효과와 회사의 적극적인 판매 독려로 매출을 단기간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상품의 경우 설계사 교육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받을 경우 1개월은 설계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판매독점 기한이 끝나 타 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이 출시된다"며 "현 제도 하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아도 크게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양협회가 따로 심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제기되고 있는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적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협정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여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권 기한을 늘리면 산업 전체적 발전 차원에서 도움이 안될수도 있다"며 "여러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긍정부정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20~30대 고객에 경품

KB국민은행이 오는 28일까지 20~30대 주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락스타(樂star)클럽' FUN서비스를 실시한다.

락스타클럽은 20대 고객을 위한 전용 제도로, 락스타 영업점을 거래하는 대학생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 6월 시행됐다.

락스타클럽 고객에게 매월 추첨을 통해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금까지 총 1만명 이상에게 영화 및 공연관람 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달부터는 개편된 락스타클럽을 통해 대상 고객을 확대했다. 연령을 만 38세까지 넓혔고, 전 영업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락스타클럽 고객은 20~30대 고객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은행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연령대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락스타20', '락스타30'으로 선정된 고객은 공연초대권, 영화예매권, 각종 상품권 등 다양한 생활 속 혜택을 제공하는 FUN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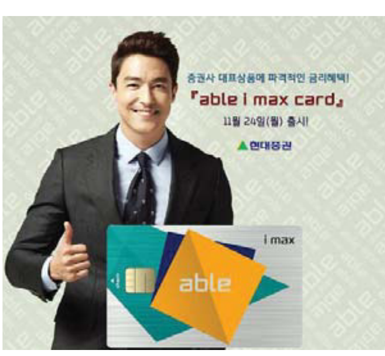
이번 FUN서비스를 통해 KB국민은행은 총 1500명의 고객에게 뮤지컬 '킹키부츠', '그날들' 등의 공연초대권, 영화예매권, 통신데이터쿠폰, YBM교육상품권, 주유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FUN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 KB스타뱅킹,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민지기자 minji@



"뱅크월렛 카카오 통장 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 우리은행은 24일 뱅크월렛카카오 전용 충전계좌인 '우리 뱅크월렛카카오 통장'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뱅크월렛카카오 충전계좌로 등록시 연 1.0%의 금리우대와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해 기존 계좌를 이 상품으로 전환해 가입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 제공

현대증권, CMA금리 두배 체크카드

현대증권은 24일 금융상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개념 체크카드인 '에이블 아이 맥스 카드'(able i max card)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당월 사용실적의 3배까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기본금리의 2배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혜택은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카드를 많이 쓸수록 이자 혜택이 커진다.

현대증권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위한 '에이블(able) 법인체크카드'도 동시에 출시한다.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0.3% 포인트를 제공하며 주유업종 가맹점(LPG 제외)에서는 ℓ당 40포인트를 준다. /김현정기자 hjkim1@

"블루오션 베트남을 잡아라"

은행들, 지점인가·MOU로 진출 잰걸음

은행권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4개 영업점 인가를 받았다.

이번 동시 인가는 베트남 은행 지점 인가제도가 연 단위 일괄 승인 방식으로 변경된 후 외국계 은행 중 처음이다.

인가를 받은 영업점은 하이퐁, 타이응웬, 호치민 안동(이상 지점), 하노이 팜흥(TO)에 있으며 신한은행은 베트남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승인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점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신한베트남은행은 내년에 모두 14개의 채널망을 갖추게 된다.

하나은행은 호치민 지점 설립을 위한 내인가를 받았다. 이는 베트남 진출 7년만의 결실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호치민 시를 포함한 베트남에는 약 3400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다 베트남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베트남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내인가는 하나금융그룹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전략 사례로, 외환은행 하노이 지점과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외환은행 하노이 지점은 지난 1999년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에 개점해 영업중에 있으며 하나은행 호치민 지점은 내년 1분기 중 출범 예정이다.

김주하 NH농협 은행장은 직접 베트남을 방문, 원활한 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월 김 행장은 동남아지역 진출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점 인가 신청서 제출을 계기로 베트남 당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현지 진출 거래 기업을 방문하는 등 글로벌 현장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의 잇딴 진출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0일 베트남은행협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中 금리 인하, 한국 증시엔 호재

화학·정유주 강세…한은 금리인하 압박 커져

중국이 2년4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국내 증시에 동반 호재로 작용했다. 국내 화학·정유주의 주가가 중국발 실적 개선 기대감에 특히 강세를 보였고 시행 2주째를 맞는 '후강퉁'을 중심으로 중국은 물론 한국에 대한 외국인 수급도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22일부터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0.4%포인트를 낮춰 5.6%로 인하됐으며,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는 0.25%포인트가 인하돼 2.75%로 낮아졌다.

지난 2012년 7월 이후 첫 금리 인하 조치다.

중국 정부가 올 들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왔는데도 자금경색 우려가 가시지 않자, 한발 더 나아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4월 이후 PBOC가 지급준비율 부분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렸지만 부실자산 증가와 예금 감소, 기업 자금부담 지속 등으로 경기가 더 부진해질 위험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자금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와 함께 후강퉁 시행 등 단계적인 금융개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노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9월 중순 이후 국내 시장에서 2조원 이상 순매도한 외국인이 이번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 유입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노종원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2002년 2월, 2012년 6월과 7월 등 전례를 보면 중국이 금리를 내린 직후 일주일간 국내 자본재 업종의 수익률이 코스피를 웃돌았던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중국 경기민감주인 화학·정유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들썩였다. LG화학·롯데케미칼·SK이노베이션·한화케미칼·금호석유 등이 나란히 장중 4%대 강세를 보였다.

윤재성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 인하는 화학·정유 업체의 재고 비축와 실물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한층 커서 유가 반등과 화학제품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17일 첫 시행된 중국 상하이증시와 홍콩 증시간 주식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후강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란 호재가 나왔으므로 앞으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후강퉁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경기부양'에 가세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은 "인민은행이 '전반적인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면서 이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와 은행의 전반적인 지급준비율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올해 3분기(7.3%)와 1~3분기 전체(7.4%)의 성장률을 감안할 때 4분기에 대폭적인 반등이 없다면 올해 목표인 7.5%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는 "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BOJ)의 통화완화 확대에 이은 중국 인민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김민지·김현정기자 minji@metroseoul.co.kr



선진국에 분산투자 합성ETF 출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선진국에 분산투자하는 '신한 BNPP SMART 합성-MSCI 선진국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북미를 포함, 영국·일본·프랑스 등 23개 선진국의 중·대형주 약 1600 종목으로 구성된 MSCI 월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합성 ETF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제공

제일모직, 내달 10~11일 청약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이 다음 달 10~11일에 걸쳐 2874만9950주를 공모한다.

제일모직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관계회사인 삼성SDI와 삼성카드가 각각 500만주와 624만9950주를 내놓고 주요주주인 KCC도 750만주를 매출한다.

신주 1000만주도 발행된다.

공모가는 주당 4만5000~5만3000원으로 모집액은 1조2937억~1조5237억원에 이른다.

납입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대표주관사는 대우증권이며 공동주관사는 우리투자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JP모간 등 3곳이 담당한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KB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주식을 인수해 일반에 공모한다.

제일모직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계열사로서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지분 25.1%)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도 각각 8.37%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아프로서비스, 사회공헌 대축제

러시앤캐시, OK저축은행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지난 22일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계열사 임직원 600여명과 함께 '2014 아프로서비스그룹 사회공헌대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종길 안산시장, 성준모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시 어머니 배구단, 안산농협 부녀회 어머니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김장 담그기와 쌀 배달, 노력봉사 등을 실시했다.

또 그룹은 12월 한 달간 전국에서 불우이웃에게 총 1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폭 넓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카드 결제 50만원 초과시 신분증 제시

앞으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 분실 등으로 일어날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인증 받아야 한다.

단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 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2개월 전부터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바뀐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백아란기자



청년 구직자 위한 '취업설명회' 메리츠화재는 지난 22일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고객과 일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메리츠화재 제공

'중형차의 해답' 선두 굳히기 야심작

시승기

토요타 올 뉴 스마트 캠리





미국 자동차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중형차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현대 쏘나타와 기아 K5(옵티마) 등을 비롯해 쉐보레 말리부, 토요타 캠리, 닛산 알티마, 혼다 어코드, 포드 퓨전이 격전을 벌이는 곳이 바로 이 시장이다.

이 치열한 경쟁의 승자는 언제나 캠리였다. 캠리는 선두였던 포드 토러스를 97년에 밀어낸 이후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올해도 10월까지 36만8142대를 판매해 어코드, 알티마, 퓨전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2012년 7세대로 진화한 캠리는 3년여 만에 '2015 올 뉴 스마트 캠리'라는 이름의 신차로 탈바꿈했다. 지난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첫 선을 보인 이 차는 7세대 캠리의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다. 캠리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달리면서 그 변화를 직접 체험해봤다.

올 뉴 스마트 캠리의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디자인이다. 마이너 체인지 치고는 변화 폭이 크다. 앞 모습은 미국 전기차 '테슬라 모델S'를 연상케 한다. 날렵한 헤드램프가 특히 닮았다. 사다리꼴 모양의 에어 인테이크(흡기구)는 토요타 아발론의 것과 비슷하다. 테일램프는 렉서스 ES와 약간 닮았다. 이렇게 상급 모델의 아이템을 차용하면서 캠리는 한 차원 높은 고급감을 추구했다.

3년 만에 디자인도 큰 폭 변경 눈길
안락한 승차감, 뛰어난 연비 자랑

실내의 경우 대시보드 기본 틀은 구형과 같지만 센터페시아를 중심으로 설계를 바꿨다. 모니터 주변 스위치는 기존 10개에서 6개로 줄었고, 큼직해진 버튼 덕에 조작이 더 쉬워졌다.

시승차는 2.5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 2종류가 준비됐다. 판매 차종은 3.5 가솔린까지 3종류지만 대부분의 판매는 이들 두 차종이다.

먼저 하이브리드 모델에 올라 시동 버튼을 눌렀다. 기자를 포함해 세 명의 남자가 탔지만 차안에는 숨소리만 들린다. 디젤차보다 확연히 앞서는 부분이다. 차는 엔진이 가동된 후에도 정속주행을 하면 시속 60km 정도까지 모터구동을 지속했다. 과거 캠리 하이브리드를 혼자 탔을 때는 시속 80km까지도 모터로만 달릴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성인 세 명이 탔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압축비를 높인 앳킨슨 사이클 엔진은 높은 효율이 장점이지만 초반 토크에 약점이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해주는 게 바로 전기모터의 역할이고, 캠리 하이브리드는 그 점에서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제주의 굴곡진 와인딩 로드를 달린 후 체크한 연비는 13.3km/ℓ였다.

캠리는 패밀리 세단을 지향하는 차지만 토요타는 좀 더 젊은 고객층을 위해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 그 중 하나가 서스펜션이다. 앞 스트럿, 뒤 듀얼 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은 코일 스프링과 쇼크업소버 댐핑 특성을 바꿔 좀 더 탄탄한 핸들링을 보여준다. 시승 중 더블 레인체인지(급차선 변경 후 다시 되돌아오는 것)를 시도했는데 매우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캠리는 예전 모델들처럼 전반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토요타는 늘 그래왔듯이 소비자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것이다. 그것이 1600만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의 '힘'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탄소섬유로 창조경제 뒷받침

효성-전북, 벤처 20개 집중 육성 지원

효성이 전라북도와 함께 '세계 최고 탄소 클러스터' 만들기에 나선다. 효성은 지난해 전북 전주에 연간 2000톤 규모의 고성능 탄소섬유 공장을 완공한데 이어, 2020년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1만4000톤의 연간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400억원을 투자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세계 최고 탄소 클러스터' 구축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효성과 전북은 KIST 복합소재연구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과 함께 탄소섬유 소재의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활성화해 탄소섬유 소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특화 밸리를 조성한다.

효성은 자동차, 조선, 건설기계, 항공기, 전력 분야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탄소섬유를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전분야로 탄소섬유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을 통해 2020년 까지 탄소 관련 제품 수출 100억 달러(약 1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효성은 전주공장과 맞닿아 있는 부지에 약 1650㎡(500평)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2015년 완공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는 '탄소클러스터' 확대의 중추 역할을 한다. 효성과 전북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해 각각 50억원을 출연, 총 100억원의 탄소밸리 매칭펀드를 조성한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지원자나 탄소 전문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자금지원뿐 아니라 효성의 경영 노하우 전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효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등이 동시에 이뤄진다. 입주 기업은 제품개발 실험장비 및 원료 지원도 함께 받는다.

/김태균기자 ksgit@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냉장고 1000만대 판매 LG전자는 24일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냉장고가 2007년 누적 판매량 100만대, 2011년 500만대에 이어 이달 1000만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제공

한솔 내년 1월 지주사 전환 채비

주력 한솔제지 인적 분할

한솔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주력 계열사인 한솔제지를 인적 분할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는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안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솔제지는 지난 8월 이사회에서 회사를 0.62대 0.38의 비율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한솔그룹은 한솔로지스틱스→한솔제지→한솔EME→한솔로지스틱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다.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사업회사(한솔제지)는 인쇄용지·산업용지·특수지 등 기존 주력 사업을 담당한다.

한솔그룹은 지난해 4월 한솔제지와 한솔CSN(현 한솔로지스틱스)을 각각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끼리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 했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한솔CSN 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분할안이 승인되면 분할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며 한솔홀딩스의 분할 변경상장과 한솔제지의 재상장은 내년 1월 26일에 이뤄진다.

1991년 삼성에서 분리된 한솔그룹은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2002년부터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외손자인 조동길 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박성훈기자

피날레는 걸스데이 혜리가…



지스타 2014 마지막날 입장을 대기하는 관객들의 모습. 이날 하루에만 5만 5000여 명이 벡스코를 방문했다. /지스타 사무국

지스타2014가 남긴 뒷이야기

올해 열 번째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4'가 화려한 막을 내렸다. 지스타 2014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만큼 다양한 뒷이야기를 남겼다. 미처 전하지 못한 지스타 소식을 전한다.

/부산=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 게임회사 대표 '폰카족' 되다

지스타 첫날은 게임회사 대표들에게 특별한 날이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경쟁사 신작 동향을 탐색하는 중요한 기회인 것. 모 유명 게임회사 대표는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들고 다니며 경쟁사 부스에 설치된 신작들을 유심히 찍어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했다. 그는 직접 경쟁작 시연대에 앉아 게임을 체험했고, 플레이 영상만 공개된 작품마저 그 영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갔다. 모 게임회사 관계자는 "이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임은 플레이 영상만 공개한다"고 귀띔했다.

▶ 복권 당첨보다 어려운 벡스코 택시 잡기

벡스코 주변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 지스타 참석자들은 발을 동동 굴려야 했다. 셔틀버스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 이 때문에 같은 방향끼리 합승하는 경우도 많았고, 일부는 벡스코 인근 백화점까지 올라가 택시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택시 잡기는 해운대 백사장에서 김서방 찾기. 기자는 다른 업체 관계자들과 간신히 택시를 잡았다. 택시 기사에게 택시 잡기가 어렵다고 말했더니 택시 기사는 '벡스코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고 답함. 내년 지스타 홍보는 택시 업계까지 꼭 챙기길.

▶ 지스타 피날레는 걸스데이 혜리?

올해도 수많은 스타들이 지스타를 방문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계적인 슈퍼 모델 케이트 업튼부터 롯데 자이언츠 인기 치어리더 박기량까지 벡스코에서 팬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를 끈 스타는 걸스데이 혜리. 지스타 마지막날 혜리는 자신이 홍보모델로 활동하는 헝그리앱 부스를 방문해 팬 미팅을 가졌다. 사인회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팬이 한꺼번에 몰리자 안전사고 우려로 행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지스타 피날레는 혜리가 화려하게 장식한 셈.

▶ 지스타 히든 챔피언 B2B 전시관

올해 지스타는 일반 부문(B2C)보다 기업 부문(B2B) 성장이 돋보인 행사였다. 지스타 2014 B2C 입장객은 예년 수준이었지만 B2B 입장객은 지난해보다 18.5% 증가할 정도로 전세계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부 기업의 경우 해외 투자 문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내년 지스타에서 B2B 전시관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다.

▶ 전문가 뺨치는 게임 팬의 사진실력 비결

B2C관에서 게임 의상을 입은 부스 모델이 나올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가득 터진다. 전문 사진가 못지 않은 카메라 장비를 들고 촬영하는 게임 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일부 게임 팬은 부스 모델에게 각종 포즈를 요구하며 수십분씩 사진을 찍어 눈총을 샀다. 해당 홍보팀 관계자들은 행여 무슨 사고라도 날까 노심초사했다고. 부스 담당자는 "사진 결과를 보면 극성팬이 찍은 사진 품질이 정말 좋다. 게임 부스 모델만 집중적으로 사심을 담아 찍는 것이 비결이 아닐까"라고 분석.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놓고 '팽팽'

이르면 내일 미방위 법안소위서 결론… 반 KT-KT진영 이견

유료방송업계가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놓고 반 KT 진영과 KT 간 극심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2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혹은 다음달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유료방송업계는 향후 사업 확장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처리 결과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성방송은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케이블TV와 IPTV는 모두 가입자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하고 있는 KT그룹은 무제한 가입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KT가 서비스하고 있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때문에 제기됐다. OTS는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서비스로, 이를 IPTV로 보느냐 위성방송으로 보느냐에 따라 규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KT계열 가입자는 731만명(IPTV 537만, 위성방송 194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7.7%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 6월말(560만) 대비 2년 새 시장점유율이 2.9%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약 2018년 33%의 시장점유율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KT가 OTS를 앞세워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를 투입하며, 약탈적 마케팅을 자행하고 있다"며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마케팅비 과다 지출로 인한 요금 출혈 경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역시 케이블·IPTV·위성방송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범위 내에서 봐야 한다며 합산규제 법안에 찬성, 반 KT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KT 관계자는 "OTS는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라며 "케이블의 하락과 전체적인 IPTV 시장의 상승세는 고객들의 서비스 평가에 따른 시장의 흐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프레젠테이션 준비 '스마트 USB'로 SK텔레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필요한 기능을 하나로 모은 '스마트 USB'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USB는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동해 프리젠터, 마우스, 메모리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SKT 제공

기업 악성 루머 걱정 끝!

투비씨앤씨 '이노소셜·오픈버스' 서비스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악성루머를 골라낼 수 있는 솔루션이 등장해 화제다.

솔루션 개발 업체인 투비씨앤씨(www.2bcnc.com)는 이같은 장점을 지닌 '이노소셜(INNO SOCIAL)'과 '오픈버스(OPEN BUS)'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노소셜은 트위터에서 추출한 키워드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키워드의 확산속도를 도형의 크기와 색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속한 조직이나 회사에게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는 악성 루머가 시작되면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바로 경고해 준다. 이노소셜은 한화그룹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

오픈버스는 페이스북에서 공유되는 페이지와 포스트 내용을 추적해 수치화된 그래프와 도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원하는 그룹을 설정하면 해당 그룹에서 '좋아요'와 댓글 등을 많이 받은 포스트를 알려준다.

투비씨앤씨 관계자는 "이노소셜과 오픈버스는 시장의 트렌드와 변화를 감지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앱 내려받아 에이즈 막는다

애플 '빨간 앱' 판매 눈길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에이즈를 퇴치할 수 있다.

애플이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빨간(RED) 애플리케이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앱스토어 내 '앱스 포 레드(Apps for RED)'라는 특별코너를 마련해 25개의 특화 앱을 판매한다고 덧붙였다.

'앵그리 버드' '버블위치사가 2' 'CSR 레이싱' '클래시 오브 클랜' '피파 15' 등 인기 앱이 이번 이벤트를 위해 재탄생했다. 이벤트 관련 보너스 레벨을 추가하고 새로운 아이템도 도입했다. 앱 판매 수입금은 에이즈 퇴치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애플은 가장 큰 쇼핑 대목인 11월 28일과 12월 1일 전 세계 애플 직영점과 온라인 스토어의 매출 일부도 기부할 방침이다. /이국명기자



GS건설, 미스코리아와 김장 나눔 봉사 지난 주말 경기도 용인시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열린 GS건설 김장김치 봉사활동에서 회사 임직원과 가족, 미스코리아가 함께 김장김치를 담고고 있다. /GS건설 제공

'브랜드 아파트'로 내집 마련 기회

1만2천가구 일반 분양

24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의 연내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제외, 오피스텔 포함)은 22개 사업장 총 1만7586가구 중 1만2928가구가 일반분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 에스티움

삼성물산이 11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39번지 일대 신길7구역을 재개발 해 공급하는 '래미안 에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19개 동, 전용면적 39~118㎡ 총 1722가구 중 79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상도로, 여의대방로, 노들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당산역 롯데캐슬 프레스티지

롯데건설이 11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4구역을 재개발 해 공급하는 '당산역롯데캐슬프레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6층 2개 동, 전용면적 84㎡ 총 198가구 중 10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지하철 2·9호선 당산역과,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있고, 올림픽대로, 노들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 자이

GS건설이 11월 서울 종로구 교남동 돈의문뉴타운1구역을 재개발 해 공급하는 '경희궁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1층 30개 동, 전용면적 33~138㎡ 총 2533가구 중 108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 마곡13블록 힐스테이트 마스터

현대엔지니어링이 12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블록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마스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1194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이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있다.

◆ 한강신도시3차 푸르지오

대우건설이 11월 경기 김포시 택지개발지구 Aa-03블록에 공급하는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 총 1510가구로 구성된다. 356번·48번 국도, 김포한강로를 이용할 수 있고, 김포도시철도 구래역이 개통 될 예정으로 교통은 개선될 전망이다.

◆ 광교신도시 힐스테이트 광교

현대엔지니어링이 11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D3블록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광교'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9층 8개 동, 전용면적 97~155㎡ 총 928가구 아파트와 전용면적 45~84㎡ 총 172실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김두탁기자 kimdt@m

주차장 10㎝의 마법… '문콕 테러' 방지한다

주차해 놓은 차 문에 흠집이 생기는 일명 '문콕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광폭형 주차장이 인기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 SK뷰' 일부 주차구역에 20㎝ 넓은 2.5m의 공간을 제공했다. 차체가 크거나 주차에 서툰 초보·여성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충남 당진시 송악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 분양한 '당진 힐스테이트'도 주차장 너비를 10~20㎝ 넓혔다. 또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영통'에는 20㎝ 넓은 2.5m의 광폭 주차장을 선보였다.

삼성물산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에스티움'에 편리한 주차를 위해 경차 주차구획을 제외한 전부를 2.4m의 100% 와이드형 주차공간으로 설계했다.

반도건설이 지난 10월 분양 마감한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초보 운전자도 쉽게 주차 가능토록 20㎝ 더 넓은 주차공간을 일부 배치했고,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했다. /박선옥기자

위례신도시 상가 분양 2라운드

동남권 아우르는 대형 상권 성장 기대

위례신도시 흥행 신화가 아파트에서 상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신식 설계와 신평면을 내걸고 자존심 싸움을 벌였던 대형건설사들이 이번에는 상가 분양대전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아파트 투자 열풍이 상가로 옮겨 붙고 있다. 지난 9월 공급된 '위례 1차 아이파크 애비뉴' 150여개의 점포가 1개월 만에 완판된 데 이어 이달 초 나온 '위례 호반베르디움' 단지 상가는 1층 기준 평균 3.3㎡당 4820만원에 낙찰됐다.

위례의 경우 4만 명에 달하는 상주인구를 비롯해 서울 송파, 성남, 하남 3개 지역에 걸쳐 있는 입지적 특성상 하남·성남 구시가지 수요까지 배후로 두고 있다. 이에 개발이 마무리되면 수도권 동남권을 아우르는 대형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특히 최근 공급되는 상가 대부분 중심상업지역인 트랜짓몰에 속했거나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어 저금리 기조 속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트랜짓몰의 경우 수요를 유입할 수 있는 트램(노면경전철)을 강조하고 있으나 2021년에야 개통이 된다. 2016~2017년 아파트 입주와 함께 상가의 영업이 시작되고도 4~5년가량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현재 트랜짓몰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곳은 한화건설의 '위례 오벨리크스'다. 업무용지 24블록에서 오피스텔·상가가 함께 공급되며, 친환경 녹지공간인 '휴먼링' 내 위치해 전경이 좋고 신도시 내 어디든 보행 또는 자전거로 1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지하 1층에 7개관 1000석 규모의 롯데시네마의 입점이 확정됐다.



현대건설이 지난 20일 입찰을 받은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상업시설도 트랜짓몰 안에 들어선다. 지하와 후면에 점포가 없는 100% 대면식 배치를 취했다. 2개 동 2층을 다리로 연결해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의 접근성·연계성을 강화했다. 층고 역시 1층뿐만 아니라 2층까지도 높게 설계해 공간활용도와 개방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GS건설도 지난 18일 A2-3블록 '위례자이' 단지 내 상가가 입찰을 진행했다. 단지 바로 앞 A2-2블록까지 포함해 약 2000여 가구의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지상 1·2층, 전용면적 31~45㎡ 총 11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특히 2층 2곳에 약 51.8㎡ 규모의 테라스가 설치되며 상가 전용율이 1층 상가 기준으로 86.3%로 높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내달 초 C2-2·3블록에서 '위례 스칸디몰'을 공급한다. C2-2블록은 46개, C2-3블록은 32개 총 78개 점포로 구성된다. 전면으로 시원하게 펼쳐지는 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해 수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위례신도시의 높은 아파트 인기가 상가 열풍으로 번졌지만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며 "또 신도시는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트램 개통 시기도 늦어 소비 이탈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신길뉴타운에 '래미안 에스티움' 분양

삼성물산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에스티움'을 이달 분양한다. 더블역세권 단지로 뉴타운 내세어도 입지가 좋고 사업 속도가 빨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7층, 19개동, 전용면적 39~118㎡, 총 1722가구로 이뤄졌다. 이 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794가구이며, 85㎡ 이하 중소형이 84%를 차지한다. 지난해 10월 신길뉴타운11구역에서 공급된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949가구와 함께 전체 2671가구의 래미안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교통·교육·편의 등 풍부

래미안 에스티움은 바로 앞에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있다. 보라매역도 도보 거리인 더블역세권 단지다. 지하철을 이용해 강남권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국제금융지구인 여의도와 영등포·디지털산업단지·신도림 등 주요 업무지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래미안 에스티움 투시도.

특히 신풍역은 2018년 완공 예정인 신안산선(안산 중앙역~여의도 1단계)으로, 보라매역은 2019년 개통 예정인 경전철 신림선(여의도~서울대)으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3개 노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의 형성으로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여의도IFC몰, 신세계·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사러가시장 등의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보라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한림대부속강남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과도 인접했다.

◆채광과 개방감 살린 세심한 설계

래미안 에스티움은 북고남저의 지형을 살려 전체의 80% 이상을 남향으로 배치해 채광성과 개방감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 법적 기준보다 높은 44%의 녹지율을 적용했다. 또 1㎞의 둘레길을 산책하며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오감체험형 토탈 힐링가든을 래미안 최초로 조성했다.

모델하우스는 영등포구 신길동 252-11번지에 마련됐고, 입주는 2017년 4월 예정이다. (문의 02-848-2600) /박선옥기자

대형가전 매출 줄고, 건강식은 늘어

날씨따라 제품 희비 크게 엇갈려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기후 이상 현상으로 올해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매출 희비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매장의 주요 카테고리 별 매출 누계를 분석한 결과, 날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대형 가전과 패션 등의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웰빙이나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자 트렌드 확산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올 여름의 경우 전국 평균 기온이 각각 25.1도와 23.8도로 전년보다 1.2도, 3.5도 각각 낮았다. 게다가 마른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에어컨은 물론 판매 호조를 기대했던 제습기 판매는 저조했다.

실제로 이마트에서 냉장고·에어컨·제습기 등이 포함된 대형 생활 가전 카테고리의 매출은 전년보다 12.0%나 감소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과즙음료의 경우는 전년보다 15.8% 역신장하는 등 커피나 음료 카테고리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9.3%나 줄어들었다.

패션 카테고리는 '시원한 여름'에 이어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과 캐주얼, 유·아동 등 장르를 불문하고 10% 안팎으로 감소했다.

지난 10월의 경우 전년보다 평균 기온이 0.6도가량 떨어지는 등 다소 쌀쌀해지자 겨울 의류 등이 일시적으로 호조를 보였지만, 내년 2월까지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해당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마트 건강식품 매장에서 고객이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 제공

'날씨'영향으로 비상이 걸렸던 대형마트 매출은 '신개념 건강식품'이 잇달아 좋은 반응을 얻으며 감소분을 채워 주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건강식품' 카테고리 매출 증가율은 11.9%로 이마트 전체 상품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객단가 또한 12.8% 증가했다.

회사 측은 '이마트 반값 홍삼'으로 촉발된 '신개념 건강식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선보이는 상품마다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근에 선보인 '반값 유산균'의 경우 출시 3주 만에 매출 4억원을 올렸다. '이마트 슈퍼베리 주스' 역시 출시 10일 만에 1만 개 이상 팔리며 1차 생산 물량을 대부분 소진하는 등 홍삼 관련 제품 매출은 올해 들어서만 100억원 매출을 돌파했다.

한편 일본 원전 사고의 불안감으로 매출 부진을 겪어온 수산물이 올들어 풍어와 양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급량이 늘어나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에 힘입어 7.8% 신장하며, 건강식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이틀간 120억원 매출을 올린 '반값 한우데이' '990원 삼겹살' '횡성한우 단독 판매' 등 이마트 미트센터에서 자체 생산한 상품들로 경쟁력을 높인 축산물 역시 4.5% 매출이 증가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모든 직원이 바리스타 엔제리너스커피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엔제리너스커피 스페셜티 매장 오픈을 기념해 큐그레이더의 스페셜티 커피 시연 행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강강술래, 영양 간식 '파격 할인'

한우떡갈비·돈가스 등 2+1 증정행사
한우사골곰탕·쇠고기육포 40% 할인

겨울이 성큼 다가왔지만 높고 맑은 하늘과 푹신하게 쌓인 낙엽, 밤을 수놓는 별자리와 함께 하는 늦가을 캠핑의 묘미를 즐기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용 영양간식을 파격할인 판매한다.

12월 3일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칠질한우 떡갈비(1.08kg·3만800원), 흑임자 한돈너비아니(1.08kg·1만9600원), 통등심돈가스(2.16kg·2만3800원), 모짜렐라돈가스(2.16kg·2만8000원)를 2세트 사면 1세트를 덤으로 추가 증정한다.

떡갈비는 100% 한우 갈빗살로 만들었다. 너비아니는 국내산 돼지고기 70%와 아미노산과 비타민E가 풍부한 흑임자를 넣었다. 돈가스는 국내산 돼지 통등심을 100% 사용했다. 모짜렐라 돈가스의 경우 아이들에게 좋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자연산 치즈를 듬뿍 담았다.

또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6봉·18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박스(350㎖·10봉·20인분)는 3만78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10봉)는 3만60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강강술래 곰탕은 색소·조미료 등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다. 멸균처리를 통해 파우치로 포장해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한편 12월 3일까지 매장(청담·홍대점 제외)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거나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게 국내산 갯벌천일염(3kg)을 무료 증정한다. 또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을 1병 주문하면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1병을 선물로 준다.

/정영일기자

뜨는 겨울 스포츠 간식은…

소용량·단시간 내 에너지 보충 제품 인기

기온이 낮아지면서 국내 스키장들이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겨울 스포츠 마니아만큼이나 겨울 시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식·음료업계 종사자는 겨울 대목을 잡기 위해 관련 제품 출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스키장 등에서 간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내놓고 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1~2분 사이에 간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청과브랜드 돌(Dole)코리아가 출시한 '돌 트리플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를 포함한 엄선된 3종류의 과일에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와 씨앗을 원물을 수제 생산방식(핸드메이드)을 통해 제품 그대로의 맛과 모양을 살려 생산한 영양 간식이다. 특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겨울철 스포츠 활동에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또한 한 손에 잡히는 싱글팩으로 구성되어 휴대가 간편해 휴식 시간에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다.

청정원이 출시한 '고구마츄'는 신선한 고구마를 바로 쪄서 첨가물 없이 그대로 말린 고구마 스낵 제품이다. 설탕과 합성감미료의 사용 없이 고구마 본연의 단맛을 색다른 식감으로 즐길 수 있다. 파우치 1회 분량으로 포장되어 휴대가 간편하고, 1회 분량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스포츠 활동 때 제격이다.



다향오리의 '나는 오리 육포다'는 엄선된 국내산 100% 오리고기로 만든 육포로, 아미노산과 각종 비타민 및 무기질이 풍부해 지친 체력 보충에 효과가 있다. 칠리맛과 치즈 맛 2종의 특제 분말수프가 함께 동봉돼 있어 기호에 따라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

정식품이 출시한 '아몬드 퓨어 초코'는 100% 캘리포니아산 아몬드와 카카오 열매에서 추출한 코코아 파우더를 사용한 순 식물성 음료로 아몬드의 고소함과 카카오 초콜릿의 진하고 달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매일유업 상하치즈의 큐브타입의 치즈 제품인 '한 입에 고다치즈'와 '한 입에 레몬크림치즈'는 맛과 영양에 간편함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 상자에 일반 슬라이스 치즈의 약 3분의 1용량이 낱개 포장돼 있어 영양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그냥 먹어도 짜지 않은 색소·설탕·보존료 등도 일체 첨가하지 않았다. /정영일기자

"비싸더라도 지갑 연다"

나를 위한 투자…'가치 소비' 주목



자신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가치 소비'가 유통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식품부터 패션·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가치 소비 트렌드가 번지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고가 상품에도 만족을 위해 과감하게 지갑을 열기 때문에 업계는 기능성을 갖춘 가격 대가 높은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3년 갤럽 조사 결과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35분'으로 성인에게 권장하는 평균 수면 시간인 7~8시간보다 2시간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기능성 베개의 수요도 늘고 있다. 침구 업계는 매장 내에 체험해 볼 수 있는 수면실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모양과 수면 특징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브자리는 수면 전문브랜드 슬립앤슬립을 운영 중이다. 1대1 맞춤형 체험 서비스를 통해 수면 자세와 체형에 맞는 베개를 포함한 침구 제품을 추천해주고 있다. 슬립 코디네이터(이하 슬립 코디)가 경추 측정기·체압 측정기 등 전문 도구를 사용해 체형을 점검한 뒤 수면 습관에 맞춰 베개(**사진**)를 추천해 준다.

고도담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브자리 전체 속통 내에서 기능성 베개 속통의 판매 비중이 20~30% 정도로 증가했다"며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기능성 베개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옷에 대한 인식이 우리 몸 가장 가까이 닿는 옷이자 몸매를 바로잡아 주는 패션 아이템으로 바뀌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속옷을 찾으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업계도 피팅룸을 마련해두고 구매 전 제품을 입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비비안은 피팅룸을 마련해두고 점원이 속옷을 입는 법부터 체형에 맞는 속옷을 고르는 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준다.

편의점도 철저한 위생·품질 관리, 다양한 메뉴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도시락 시장 규모는 2조원으로 이 중 편의점 도시락이 차지하는 시장 규모는 7000억원 가량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간편식품 제조 공장 6곳이 해썹(HACCA,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쌀과 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밥소믈리에'를 채용해 밥맛 등 간편식 전반에 걸친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GS25는 지난해 식품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 연구원이 개발한 레시피를 토대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해썹 인증받은 위생시스템과 설비를 갖춘 푸드 생산라인에서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유통업체들 '위로 마케팅' 한창

진정성으로 고객 접근…잔잔한 감동으로





카페베네 '고3 대상 러브맘 프러포즈 이벤트'(위)와 크록스의 '따뜻한 인사말'. /각 사 제공

유통업계가 고객과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이른바 '위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마케팅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우울한 경제사정을 감정적으로나마 돌파하고 고객들에게는 진정성을 통해 접근해 호평을 받으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차(茶) 브랜드 오설록은 아시아 전통의 건강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품화한 프리미엄 티 '멘탈티(Mental tea)'를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빼기(−) 공감 더하기(+)'이벤트를 벌였다. 취업고민을 비롯해 연애·건강 등 고민거리 중 위로 받고 싶은 다양한 내용들을 댓글로 달면 각각의 사연에 맞게 스토리텔링이 담긴 위로의 댓글을 전달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수능을 치룬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께 영상편지를 전달하는 '러브맘 프러포즈' 이벤트를 지난 10월 말까지 벌였다. 수험생이 부모님을 위해 영상편지를 촬영하면, 업체에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수능 당일, 부모님께 자녀의 영상편지를 기프티콘과 함께 전달하는 것으로 많은 인기를 모았다.

엔제리너스커피도 지난 10월 고객의 주문 멘트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장에 방문해 따뜻한 멘트로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50% 할인이 적용됐으며, 비교적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면 20%를 할인해 주는 등 고객 멘트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눈길을 끌었다.

슈즈 브랜드 크록스는 연말을 맞아 페이스북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는 30일까지 '따뜻한 인사말'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페이스북에 연말에 듣고 싶은 따뜻한 인사말을 남기거나 다른 참가자의 인사말에 투표하면 추첨을 통해 따뜻한 크록스 겨울 슈즈와 호텔 숙박권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쿠팡은 대표를 포함한 1300여 명의 전 직원들이 각자 일주일에 다섯 통씩 손편지를 이용자에게 보내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위메프는 고객감동팀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매월 25건 가량의 손편지를 고객에게 보내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올해 아니면 가질 수 없다"

뷰티업계 '홀리데이 한정판'으로 유혹

뷰티업계가 연말을 맞아 '홀리데이 한정판'으로 여심을 유혹 중이다. 송년회·모임 등 연말 파티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제품부터 선물용으로 알맞은 크리스마스 컬렉션까지 다양하다. 특히 올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장가치를 높였다.

화장품 브랜드 베네피트는 다음 달 11일까지 무료 홀리데이 메이크업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 예약을 하면 원하는 목적과 테마에 맞는 화장을 받을 수 있다. 소요 시간은 약 30분이다. 이와 함께 홀리데이 한정판도 선보였다. 6가지 색상의 베네피트 베스트 블러셔로 구성된 '치키 스위트 스팟'과 '섹시 앤 스크럼셔스' 메이크업 키트 등이다. 특히 '치키 스위트 스팟'은 정품 용량 대비 약 64% 저렴하다.

메이크업 브랜드 에스쁘아는 홀리데이 컬렉션 '나잇 아웃'을 내놨다.

리퀴드 립스틱 신제품인 '컬러 인텐스 립 폴리쉬', 에스쁘아의 인기 상품인 '노웨어 M, S' 한정판은 색상·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라이팅 파우더' 등 화려한 파티 화장을 할 수 있는 제품 8종으로 구성됐다.

부티크 향수 브랜드 조 말론 런던은 향수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는 캔들 등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컬렉션'을 출시했다.

크리스마스시즌에 한정 판매하는 '코롱 컬렉션' 9㎖ 베스트 코롱 5종을 크리스마스 패키지에 담았다. '프로스티드 체리&클로브 디럭스 캔들'은 시나몬·체리·클로브 향이 어우러진 제품이다. 매장 방문 고객에게 맞춤 기프트 컨설팅도 제공하며, 컬렉션 구입 고객에게는 포장 서비스도 해준다.

/박지원기자 pjw@



뉴스&뉴스

남영비비안, 압박 타이츠·레깅스 출시



● 남영비비안은 보온성을 높인 겨울용 압박 타이츠와 레깅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장 가는 부위인 발목부터 두꺼운 허벅지까지 단계별로 압박감을 다르게 설계했으며 압박감이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을 막아 다리를 날씬하게 보이도록 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색상은 다크그레이와 블랙 등이다.

마이셰프, 페이스북 홈푸드메이트 모집



● 도루코리빙의 토털 주방용품브랜드 마이셰프는 30일까지 '홈푸드메이트'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홈푸드메이트는 요리하는 즐거움을 전하는 마이셰프 요리사로, 자사의 공식 페이스북에서 홈푸드메이트 지원 이유를 댓글로 달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홈푸드메이트는 다음 달 15일부터 4주간 마이셰프 주방용품으로 요리하는 과정과 음식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업로드하면 된다.

HNT 하나 Free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투어 창립 21주년 기념

에어텔 BIG 페스티벌

에어텔이란? **항공권**과 **숙박**만을 구입하고 여행일정은 가이드 없이 여행자 스스로 만들어 **자유롭게 여행하는 상품**입니다.

창립기념 초특가! & 스페셜 선물, 특전이 쏟아진다!

BIG 01

각 지역별 스페셜 선물 & 특전!

동남아
- 기간 : 11월 예약 한정

– 예약 코드 당 셀카봉 증정(일부지역 제외)
※물품 소진 시까지 증정(조기 마감 가능)
※지역별 출발일 조건 상이, 일정표 확인

괌
- 기간 : 11월 예약 한정 ● 출발 : 12월까지

– 씨그릴+언더워터월드
(성인 2만원/아동 1만원에 제공)

사이판
- 기간 : 11월 예약 한정 ● 출발 : 12월까지

– 선택관광 20% 할인 제공

일본
- 기간 : 11월 예약 한정 ● 출발 : 11월 1일~12월 31일까지

오키나와	렌터카 3000엔 할인, 식사권 증정
후쿠오카	쿠루쿠루 현지투어 1+1 50% 할인(11월 1일~12월 10일 출발), 시내 패스 1일 증정, 식사권 증정
오 사 카	한큐 패스 및 맛집 쿠폰 증정(스시, 라멘), 싱글 차지 무료
도 쿄	스카이라이너, 오오에도 온천 입장권, 롯폰기 입장권 증정
홋카이도	밀 쿠폰 ORTV 탑 입장권 증정, 무료 트윈 업그레이드

BIG 02

일본 자유여행 창립기념 초특가!



event 01 **규슈** 자유여행 ●후쿠오카(2) 3일
382,400부터 ▶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event 02 **오키나와** 자유여행 ●오키나와(3) 4일
440,800부터 ▶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event 03 **오사카** 자유여행 ●오사카(2) 3일
401,900부터 ▶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event 04 **도쿄** 자유여행 ●도쿄(2) 3일
375,400부터 ▶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event 05 **북해도** 자유여행 ●삿포로(3) 4일
314,300부터 ▶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하나투어 21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선택경비(관광):있음/없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비자 :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매너팁 :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NT 하나투어리스트

상담문의 1577-1212



"냉장고 청소부터 하세요"

김장김치를 맛있게…

11월 들어 본격적인 김장철에 돌입했다. 올해는 배추·무 등의 작황이 좋아 김장 재료 가격이 낮아져 가정마다 담그는 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은 재료를 고르는 것만큼 보관하는 냉장고의 위생상태도 중요하다.

숙성이 진행되는 동안 냉장고를 청소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김장 전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염물을 제거하거나 냄새를 없애는 도구들이 눈길을 끈다.

김치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성에와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내부에 미지근한 물을 뿌려 실리콘 주걱 등을 이용해 성에를 제거한다. 잘 떨어지지 않을 때는 전원 코드를 뽑아 성에가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성에가 녹은 뒤에는 냉장고 안쪽 벽면에 물 200㎖에 베이킹소다 1 큰 술과 식초 1 큰 술을 희석해 분무기에 담아 뿌려준다. 젖은 행주로 묵은 때를 닦고 마른행주로 물기를 제거하면 세정효과는 물론 탈취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오염되기 쉬운 냉장고 안쪽과 고무패킹 사이는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애경에스티 '홈즈 퀵크린 다목적용'은 99.9% 항균효과로 묵은 오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냉장고 냄새제거도 신경 써야 한다. 식빵을 포일에 싼 후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 냉장고 안에 두거나 햇빛에 잘 말린 원두커피 찌꺼기 혹은 베이킹소다를 종이컵에 담아 냉장고 안에 넣으면 냄새제거에 도움이 된다.

보다 강력한 탈취를 원한다면 냉장고용 전용 탈취제를 사용해보자. 애경에스티 '홈즈 탈취탄 냉장고용'은 탈취 효과가 뛰어난 비장탄과 활성탄이 함유됐다.

한편 김치통의 묵은 냄새는 설탕과 물을 1대 2 비율로 넣은 후 뚜껑을 닫고 흔들어주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소비자 소통 발벗고 나선다

유통업체, UCC·마케팅 공모전 등 통해 인지도 높이기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가에서 다양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브랜드 실제 타깃의 감성을 자극하는 수기공모전은 물론 대학생 취업에 도움을 주는 마케팅 공모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공모전 등 그 종류와 스케일도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전은 소비자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고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복 브랜드 크로커다일 레이디는 '여자의 행복'을 주제로 한 '제1회 여자의 행복' 수기 공모전을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대상(현명한 여자상) 1명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형지 상품권을, 최우수상(행복한 여자상) 2명에게는 형지 상품권 100만원을, 우수상(아름다운 여자상) 10명에게는 형지 상품권 10만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카페베네 모바일 상품권 5000원을 선물한다.

해피랜드 F&C의 경우 다음 달 7일 '제1회 해피랜드 로고송 UCC공모전'의 참가작을 접수한다.

참여 방법은 해피랜드 홈페이지에서 해피랜드 로고송을 다운받아 30초에서 3분 분량의 UCC 동영상을 제작한 후 사이트에 접수하면 된다. 총 24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으며, 수상자 전원에게 입사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오리온은 다음 달 7일까지 '핫브레이크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을 벌인다.

이번 공모전은 2년제 이상의 대학(원)생이라면 개인 또는 팀(최대 3인)단위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 분야는 마케팅 기획안·미디어 제작물 등 2개 부문이다. 총 7팀을 선발,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오리온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공모전도 눈길을 끈다. 28일까지 진행되는 '2014 탐앤탐스 THINK 광고공모전'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태국 등 탐앤탐스 매장이 있는 해외 현지인을 포함해 세계인을 대상으로 광고작품을 응모받는다. 대상 1팀과 우수상 2팀을 각각 선발해 3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탐앤탐스 글로벌 광고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이대목동병원 '고혈압' 건강 강좌

내달 2일 대회의실서 다양한 강의 진행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가 다음 달 2일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고혈압'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100세 건강, 시작은 혈압관리부터'를 주제로 열리는 강좌는 혈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고혈압 왜 무서운가(신길자 순환기내과 교수) ▲고혈압과 콩팥병(류동열 신장내과 교수) ▲고혈압과 뇌졸중(송태진 신경과 교수) ▲OX퀴즈로 알아보는 고혈압 상식(김형주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 강좌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자에게는 고혈압 관리를 위한 가이드북 등이 제공된다. 문의: 02)2650-5250·5308

/황재용기자 hsoul38@



당뇨병학회 'ABC 원칙' 소개

'혈당·혈압·지질' 함께 관리해야 효과



당뇨병은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과 지질도 함께 관리하는 'ABC 원칙'을 바탕으로 치료해야 한다. 사진은 대한당뇨병학회가 ABC 원칙을 주제로 최근 전개한 '푸른빛 점등식'의 한 장면.

/대한당뇨병학회 제공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조절만으로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다. 의사들은 체중 조절과 합병증 예방 등 질환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목표로 삼는다. 이에 대한 당뇨병학회가 당뇨병관리를 위해 제시한 'ABC 원칙'을 소개한다.

ABC 원칙은 당뇨병 관리를 위해 ▲혈당(HbA1c·당화혈색소) ▲혈압(Blood pressure) ▲지질(Cholesterol)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혈당 조절의 목표는 당화혈색소 6.5% 이하이며 환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당뇨병 환자는 병원 방문 시마다 혈압을 측정해야 하며 생활습관 교정과 식습관 개선으로 혈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자는 종합적인 혈중 지질검사(총 콜레스테롤·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중성 지방·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를 거쳐 이상지질혈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최선의 결과를 위해 각각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질환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학회 홍보이사로 활동 중인 권혁상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당뇨병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당뇨병관리의 기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BC 원칙은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세계 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기념해 최근 서울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푸른빛 점등식'을 거행하는 등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나는 달라' 1위되자 얼싸안았죠"

10대 소녀 둘이 만나 제대로 일냈다. 2인조 유닛 '하이 수현'으로 뭉친 솔로가수 이하이(18)와 악동뮤지션 멤버 이수현(15)은 지난 11일 '나는 달라'를 발표했다. 이 곡은 공개와 동시에 온라인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인기 고공행진 중이다. 두 사람은 목소리부터 외모까지 어느 하나 비슷한 구석이 없다. 둘의 공통점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가수라는 점과 SBS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출신이라는 것 뿐이다. 이하이는 "양현석 대표님이 처음 우리 둘의 협업을 제안했을 때 걱정이 앞섰다. 목소리부터 성격까지 비슷한 점이 없는데 잘 어울릴지 걱정됐다"며 "'나는 달라'는 내 스타일의 곡인데 수현이가 정말 잘했다. '이수현의 재발견'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이 수현의 만남이 궁금하다.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양 사장님(양현석 대표)이 친하게 지내라고 했다. 어색한 순간은 금방 지나갔다. 금방 친해져서 노래방도 가고 63빌딩도 가고 마치 관광객처럼 돌아다녔다. 언니는 나보다 더 많은걸 경험했고 또 친절하게 알려줬다.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나와 전혀 달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게 많았다." (수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그래서 양 사장님이 '수현이랑 친하게 지내고 서로 부족한 점을 배우라'고 하셨다. 수현이는 애교가 많고 적극적인 성격이다. 동생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 줘서 참 고마웠다. 우리는 다르지만 신기하게 정말 잘 맞는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배우고 있다." (하이)

◆음원 성적이 아주 좋다. 예상은 했나?

"11일 0시에 음원이 발표됐을 때 우리는 '빼빼로 데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항상 혼자서 노래하다 수현이랑 유닛을 결성하고 바비 오빠가 랩 피처링까지 도와줬다. 이렇게 좋은 조합인데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걱정이 컸다. 하지만 발표되자마자 1위에 오른 걸 보고 수현이랑 얼싸안고 기뻐했다(웃음)." (하이)

◆이수현은 친오빠 이찬혁과 악동뮤지션으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최근 하이 수현부터 토이 앨범 참여까지 개인 활동이 활발하다.

"오빠와 함께 있을 때는 편하고 익숙하다. 악동뮤지션이 아닌 이수현으로 다른 뮤지션과 작업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오빠 노래로 내 단점이 감춰졌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노래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수현)

◆'나는 달라' 랩 부분을 바비가 맡았다. 호흡을 맞춘 소감은?

"그게 갑자기 결정됐다. 처음에는 우리 둘만 불렀는데 양 사장님이 '이 부분에 바비의 랩이 들어가야 겠다'고 제안했다. 바비 오빠의 랩이 곡을 더욱 맛깔나게 만들어 줬다. 바비 오빠는 분위기를 압도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랩 부분이 더 길게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하이)

"언젠가 또 호흡 맞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바비 오빠가 도와줬으니 다음에는 나와 하이 언니가 필요할 때 도와주겠다고 했다. '콜'이라고 답했다(웃음)." (수현)

> YG 프로젝트 유닛으로 만난 **하이 수현** <



노래 제목 처럼 비슷한 것이 없는 두 소녀
외모·성격·목소리 다르지만 '찰떡 궁합'

◆또 다른 유닛에 도전하고 싶은 의사는 있는가?

"수현이와 또 해보고 싶다. '나는 달라'는 내 스타일에 가까운 곡이니까 다음에는 수현이의 음악색에 맞춰서 해보고 싶다. YG에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다. 기회가 된다면 피처링·듀오·혼성 등 여러 유닛에 도전하고 싶다. 회사에 나를 비롯한 '96년생 라인'이 있다. 나·이찬혁·비아이 동갑내기 셋이 뭉쳐도 재미있을 것 같다." (하이)

"유닛도 좋지만 악동뮤지션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다. 악동뮤지션으로 활동하면서 스페셜 앨범 같은 걸로 다른 분들과 컬래버레이션해도 좋겠다." (수현)

◆ YG 외 아티스트들과는 협업할 생각은 있는가?

"정말 많다(웃음). 음악 듣는 귀가 무척 얇은 것 같다. 좋은 노래를 들으면 바로 '와,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양 사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한다(웃음)." (수현)

◆이하이는 이제 곧 스무 살이 된다. 기분이 어떠한가?

"설레지만 두려운 것도 있다. 10대가 잘하는 것과 20대가 잘하는 건 다르다. 책임도 따른다. 하지만 표현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장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 (하이)

◆ 이하이는 'K팝 스타' 시즌1의 준우승을, 이수현은 악동뮤지션으로 시즌 2 우승을 차지했다. YG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들이 참 많다.

"다행인지 몰라도 우리는 'K팝스타'만 거쳤다. 바비·비아이 오빠는 '윈' '쇼미더머니3' '믹스앤매치'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3개나 했다. 하나만 해도 세계가 크게 바뀌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지 짐작도 안 간다. 여기서 놓치면 데뷔를 못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서바이벌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웃음). 또 하라고 하면 싫지만 찬혁 오빠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노래 만드는 실력이 늘었다. 'K팝스타' 이전에는 자기가 원할 때만 노래를 만들었는데 방송하면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곡씩 만들었다. 힘들어 했지만 기본기가 쌓인 것 같다." (수현)

"나는 서바이벌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본격적으로 키웠다. 몇 년에 걸쳐 배울 것들을 몇 달 안에 빠르게 습득했다. 잔인하지만 실력을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마치 양날의 검 같다. 매우 힘들지만 확실히 도움이 된다." (하이)

◆하이 수현이 아닌 각자의 계획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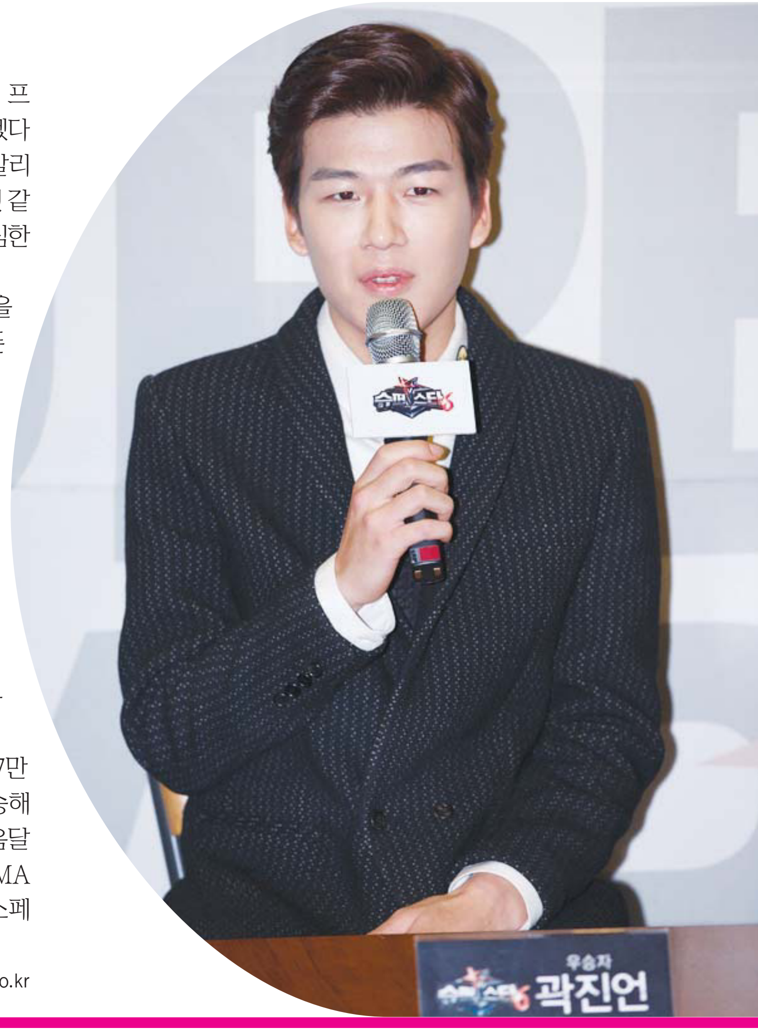
"2집 욕심은 버렸다. 작년에는 올해 안에 내고 싶었는데 벌써 연말이다. 내년 초중반에는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다. 앨범 발매 시기가 자꾸 늦춰지는데 준비를 더 철저히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 그리고 스무 살이 되기 전에 10대에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싶다. 앨범 발매만 기다리다 10대가 다 지나가 버렸다(웃음)." (하이)

"악동뮤지션 앨범을 준비 중이다. 만들어 놓은 곡이 많다. 욕심 같아서는 계절마다 발표하고 싶다." (수현)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내 노래 한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슈퍼스타K6' 우승자 곽진언,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말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6(이하 슈스케)'에서 우승자로 선택된 곽진언(사진)이 앞으로의 계획과 그간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2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는 곽진언과 함께 '슈스케'의 김무현 PD, 엠넷 김기웅 국장이 자리했다. 김기웅 국장은 "곽진언은 노래와 프로듀싱 능력 모두 탁월한 친구다. 이번 시즌에서 그 동안 슈스케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했다기보다 곽진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같다. 심사위원들이 말했듯 우리나라에 여태 없었던 또 다른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친구"라는 칭찬으로 '슈스케'에 대해 총평했다.

곽진언은 지난 21일 결승 무대에서 우승을 확정하고도 별다른 우승 소감을 전하지 못했다. 동생에게 "잘하자"는 말이 다였다. 이에 곽진언은 "마이크 위치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 쪽을 보니 동생이 울고 있었다. 순간 멈칫해 말을 잘 못했다. '잘하자'는 말은 진심이었다. 말을 안 해도 서로 아니까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며 "김필 형이 축하해주는데 정말 진심이라서 오히려 그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아들이, 형이, 동생이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자기 노래를 하고 있다고"라며 말을 이었다.

'슈스케'로 세상에 나오기 전 곽진언은 홍대 라이브 카페 등에서 차곡차곡 무대 경험을 쌓으며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갖췄다. '슈스케'에 출전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당시 앨범을 준비하기도 했다. 곽진언은 "내 노래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앞으로 우승자로 해야할 일이 있겠지만 내 음악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슈스케'는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다. 프로그램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내 노래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홍대 공연 당시 기획사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내 노래를 알리고 앨범을 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았다"고 '슈스케' 출연을 결심한 사연을 털어놨다.

곽진언은 지금도 계속 곡을 쓰고 있다. 1시간 공연은 거뜬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곡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최대한 빨리 앨범이 나오면 좋겠다. 앞으로는 대중과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응원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

곽진언은 14주 동안 147만 6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우승해 상금 5억원을 거머쥐었다. 다음달 3일 홍콩에서 있을 '2014 MAMA(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스페셜 무대에 서게 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래퍼 로꼬가 새 앨범 'LOCOMOTIVE'를 발표한다. /AOMG

래퍼 로꼬 새 앨범 '로꼬모티브' 발표

소속 레이블 AOMG 아티스트 대거 참여

래퍼 로꼬(25·본명 권혁우)가 약 8개월 만에 컴백한다.

로꼬는 오는 28일 새 미니 앨범 '로꼬모티브(LOCOMOTIVE)'를 발표한다. 소속사 AOMG에 따르면 '로꼬모티브'엔 총 9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AOMG 소속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AOMG의 수장 박재범은 선공개곡 '자꾸 생각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출연에 이어 피처링에도 참여했다. '자꾸 생각나' 뮤직비디오는 25일에 공개된다.

로꼬의 히트곡 '감아'를 탄생시킨 그레이는 이번 앨범에서도 로꼬와 손잡고 세련된 비트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 크러쉬·어글리덕·DJ 웨건·콘소울·엘로 등 많은 힙합 뮤지션들이 새 앨범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로꼬는 엠넷 래퍼 서바이벌 '쇼미더머니1'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힙합 신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특히 지난 3월 발표한 싱글 '감아'는 온라인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았다.

/김지민기자

김장훈, 伊 골도니 시어터 무대 선다

아시아인 최초… 투어 콘서트 '국가대표' 두 번째 개최지로

가수 김장훈이 아시아인 최초로 이탈리아 골도니 시어터에서 단독 공연을 갖는다.

김장훈 측은 24일 "김장훈의 투어 콘서트 '국가대표'의 두 번째 개최 도시로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확정됐다. 다음달 13일 베네치아의 유서 깊은 공연장 골도니 시어터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연은 올해 초 김장훈이 베네치아 카니발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메인 아티스트에 선정돼 공연한 것이 인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장훈이 골도니 시어터에서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622년 설립된 골도니 시어터는 세계 최초의 극장으로 이탈리아 유명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로 통한다. 유럽 의회 자문기관 공식 회의 장소로도 쓰이는 곳이다.

김장훈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나는 공연장 수집증이 있다. 골도니 시어터라는 아름다운 극장을 추억 속에 수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하다"며 "베네치아는 베네치아 카니발·베니스영화제·베니스 비엔날레 등이 열리는 세계 최고의 예술도시인만큼 장비 연출보다는 오직 노래와 음악의 힘, 그리고 관객과의 호흡 위주로 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악팀과의 협연, 이탈리아 오페라 가수와의 듀엣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의 '국가대표' 투어는 다음달 6일 광주 공연을 시작으로 베니치아·서울·부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장훈은 투어 기간 동안 신곡 4곡을 발표할 계획이며 4월 밀라노 엑스포 공연을 시작으로 북미 지역과 중국 공연도 재개한다.

/김지민기자 langkim@





Handel
Messiah
&
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무료신문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서울시합창단
합창 스칼라오페라합창단
지휘 서희태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신동원
바리톤 김동규
2014. 11. 27(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세계최대 무료신문 metro Worldwide Daily Newspaper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주관 (주) 코리아나매니지먼트 www.koreanaarts.com
후원 롯데건설 SPC 목동병원 KDB대우증권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동영상 협박' 증인 출석



배우 이병헌(사진)이 24일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씨와 모델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헌은 이날 오후 1시37분께 경호원·매니저 등 6~7명과 함께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사건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몰리자 20여분 동안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공판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조직법 57조에서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재판부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3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이병헌은 비공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면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통상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 퇴정을 명한다.

'이병헌 협박 사건' 공판처럼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효진기자

드라마가 '금기'를 다루는 법

회춘 판타지·사극·입양…"재미있게 표현하려는 시도"

지상파 3개 수목드라마가 '금기'를 유쾌하게 담고 있다. MBC '미스터 백'·KBS2 '왕의 얼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 경쟁한다. SBS '피노키오'는 삼촌과 조카가 사랑을 한다. 그러나 세 작품은 판타지나 사극, 입양을 소재로 금기를 드라마틱하게 그린다.

'미스터 백'은 80대 노인이 사고로 회춘하게 된 판타지 설정을 바탕으로 한다. 주인공인 최고봉(신하균)은 회춘 이후 주름없는 얼굴에 당황하지만 이내 젊은 이성과의 로맨스에 설렌다. 최고봉은 젊어진 뒤 신분을 감추기 위해 최신형이란 이름으로 살아간다. 나이라는 부담을 덜고 최고봉 시절 반한 은하수(장나라)에게 다가갔다. 최신형의 라이벌은 그의 아들 최대한(이준)이다. 최대한은 철없지만 남자다운 면모로 은하수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 중이다. 지난주 방송은 은하수·최신형이 한집에 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최대한이 질투를 느끼며 마무리돼 부자(父子) 간 삼각관계가 본격화됨을 알렸다.

'왕의 얼굴'은 사극 장르로 금기를 정당화한다. 서인국·이성재·조윤희는 '왕의 얼굴'에서 관상을 둘러싸고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로맨스의 핵심인 조윤희는 조선시대에 21세기적인 삶을 사는 여인 김가희 역을 맡았다. 김가희는 왕이 돼서는 안 될 관상을 지닌 선조(이성재)에게 꼭 필요한 여인이자 광해(서인국)에게는 첫사랑이다. 서인국은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여자가 현대극에 출연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삼각관계는 작품이 사극이다보니 시청자가 보는 데 불편함이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이종석과 박신혜는 '피노키오'에서 삼촌과 조카로 출연한다. 최달포(이종석)는 어릴 적 아버지를 둘러싼 사건으로 최공필(변희봉)의 첫째 아들로 입양된다. 최공필에게는 아들 최달평(신정근)과 손녀 최인하가 있다. 이에 따라 형 최달포는 동생 최달평보다 20여 살 어리고 삼촌과 조카는 동갑내기인 평범하지 않은 서열이 완성됐다. 특히 지난주 방송에선 최달포·최인하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며 청춘 로맨스를 예고해 기대감을 높였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근친의 사랑을 가볍게 다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드라마 전개를 위한 인물 관계의 설정일 뿐"이라며 "'금기'가 주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거운 소재를 재미있게 그리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MBC 수목드라마 '미스터 백'신하균·이준. /MBC 제공



KBS2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서인국·조윤희. /KBS 미디어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 이종석·박신혜. /SBS 제공

장혁·오연서·이하늬 '한자리'

픽션 사극 '빛나거나 미치거나' 출연



배우 장혁·오연서·이하늬가 MBC 새 월화극 '빛나거나 미치거나' 출연을 확정했다.

이번 작품에서 장혁은 저주 받은 운명 때문에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냈지만 점차 자신이 가진 왕재로서의 재능을 깨달아 가는 왕소 역을 맡았다.

겉으로는 밝지만 마음 한편에 상처를 가진 인물로 무예도 출중하다. 장혁은 앞서 '추노'(2010) '뿌리깊은 나무'(2011) 등 사극에서 화려한 액션으로 호평 받은 바 있다. 4년 만에 출연하는 사극으로 매력적인 남성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연서는 왕소의 연인이자 발해의 마지막 공주인 신율 역을 맡았다. 다른 나라의 빛이 될 운명 때문에 죽음을 마주해야 했던 비운의 인물이다. 그러나 당차고 밝은 모습을 지닌 그는 거대 상단 '청해상단'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현명함을 갖춘 캐릭터이기도 하다.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모습으로 극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장혁은 올해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 오연서는 MBC '왔다! 장보리'를 흥행시킨 바 있다. 두 사람이 '빛나거나 미치거나'를 차기작으로 선택하면서 MBC와 함께 다시 한 번 드라마 흥행을 이끌지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하늬도 '빛나거나 미치거나'에 합류해 데뷔 후 첫 사극에 도전한다. 고려 제일의 미인이자 황주 가문의 보이지 않는 책사 황보여원 역을 맡았다. 독을 다루는데 일가견이 있어 '아름다운 독초'로 불린다. 야망 있는 여인이자 유일한 삶의 목표가 가문의 부흥인 인물이다. 현재 SBS 주말극 '모던파머'에서 억척스러운 마을 이장을 연기하고 있는 그는 차기작에서는 냉철한 카리스마로 극의 긴장감을 부여할 예정이다.

'빛나거나 미치거나'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로맨스 픽션 사극이다. 고려 초기를 배경으로 왕소와 발해 공주 신율의 사랑 이야기를 담는다. '오만과 편견' 후속작으로 내년 1월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지성·이보영 부모 된다

배우 지성·이보영 부부(사진)가 결혼 1년여 만에 부모가 된다.

이보영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보영이 현재 임신 10주"라고 24일 밝혔다.

이어 "임신 초기 단계인만큼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성도 아내의 임신에 기뻐하며 연기 활동보다 이보영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영은 지난 4월 종영된 SBS 드라마 '신의 선물'에 출연했다. 당분간 작품 활동을 쉴 예정이다.

지성과 이보영은 2004년 SBS 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에 함께 출연하며 만나 2007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9월 결혼에 골인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난해 연말 시상식에서 각각 최우수상(KBS)·연기대상(SBS)을 수상한 바 있다. /전효진기자



하정우 2015년은 '허삼관'과 함께

내년 1월 개봉…'범죄' '베를린' 이어 흥행 노려

배우 하정우가 2015년 새해 극장가에서 또 한 번 흥행을 노린다.

하정우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와 '베를린' 등 새해 초에 개봉한 대작 영화들에서 주연을 맡아 흥행을 이끌었다.

2012년 2월에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에서 하정우는 부산 최대 조직의 젊은 보스 최형배 역을 맡아 선배 배우인 최민식과 탁월한 연기 호흡을 보여줬다.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작품에 긴장감을 더했다.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임에도 472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어 2013년 1월에 개봉한 '베를린'에서는 비밀 요원 표종석 역을 맡아 고난도의 액션 연기를 소화했다. 강인한 남성미는 물론 극중 아내로 출연한 전지현과 탄탄한 호흡을 보이며 716만 관객을 모았다.

충무로 대표 흥행배우로 자리매김한 하정우는 2015년 새해 감독과 주연을 모두 맡은 영화 '허삼관'으로 극장가를 다시 찾는다.

'허삼관'은 돈 없고 대책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뒤끝만은 넘치는 주인공 허삼관이 절세미녀인 아내와 세 아들을 둘러싸고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가 원작이다.

하정우는 주인공 허삼관 역을 맡았다. 상황에 따라 진지하면서도 때로는 천하태평인 개성 넘치는 캐릭터다. 많은 작품들 속에서 남성적이고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하정우는 '허삼관'에서 유쾌한 웃음이 있는 캐릭터로 새롭게 변신한다.

이번 작품은 하정우와 하지원의 첫 만남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배우는 부부로 호흡을 맞췄다. 하정우와 절친한 정만식·조진웅·김성균·성동일을 비롯해 이경영·김영애·윤은혜·황보라 등도 출연해 영화에 풍성한 재미를 더했다. '허삼관'은 내년 1월15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세대 초월 여배우의 만남

비노쉬·스튜어트 '… 실스마리아'서 호흡

영화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가 세대를 초월한 여배우의 만남으로 화제다. 프랑스 배우 줄리엣 비노쉬와 할리우드 스타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그 주인공이다.

줄리엣 비노쉬는 '세 가지 색: 블루'로 베니스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잉글리쉬 페이션트'로 베를린국제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프랑스 대표 여배우다. 미카엘 하네케·데이비드 크로넨버그 등 거장 감독들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이기도 하다.

이번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톱 배우 마리아 역을 맡아 섬세한 감성을 연기했다. 연극과 실생활, 젊음에 대한 욕망으로 고뇌하는 여배우로 열연을 펼쳤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트와일라잇' 시리즈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런어웨이즈' '온 더 로드' 등 인디 영화에도 출연하며 폭넓은 연기를 보였다.

이번 작품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마리아의 매니저 발렌틴 역을 맡아 줄리엣 비노쉬와 호흡을 맞췄다. 세대를 뛰어넘은 두 여배우의 연기로 영화는 올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후보에 올랐다.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는 20년 전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20대 여주인공 시그리드를 맡아 스타덤에 오른 배우 마리아가 다시 리메이크되는 동명 작품에서 여주인공의 상대역인 상사 헬레나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다음달 18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영화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의 크리스틴 스튜어트(왼쪽)와 줄리엣 비노쉬. /티캐스트콘텐츠허브

공효진·강혜정·유준상·조승우 '무대로'

영화·드라마 벗어나 연극·뮤지컬서 '맹활약'

공효진(사진 왼쪽)·강혜정·유준상·조승우(오른쪽) 등 영화와 드라마에서 자주 만났던 배우들이 올 연말 무대로 자리를 옮겨 관객과 만난다.

공효진과 강혜정은 다음달 3일 첫 공연을 앞둔 연극 '리타 에듀케이팅 리타'(이하 '리타')에 더블 캐스팅됐다.

'리타'는 주부 미용사 리타가 뒤늦게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개방대학에 입학해 그곳에서 권태로운 삶에 빠져있던 프랭크 교수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연극이다. 영국의 권위 있는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에 의해 초연된 작품이다.

특히 이번 연극은 공효진이 15년 연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연극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효진은 "15년 정도 스크린 안에 갇혀서 일해 이제는 라이브하게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재미있을 것 같다"고 연극 도전 소감을 전했다.

유준상은 지난 달 21일막을 올린 창작뮤지컬 '그날들'에서 열연 중이다. 지난해 초연돼 14만 명의 관객을 대학로로 끌어온 흥행작으로 가수 고 김광석의 노래를 재구성했다. 초연부터 참여해온 유준상은 '그날들'에서 뛰어난 무대장악력과 쇼맨십을 보여줘 매회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조승우도 지난 21일 개막한 '지킬 앤 하이드'로 무대를 찾았다. 2004년 한국에서 초연된 뒤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특히 조승우가 등장하는 공연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출연 회차 모두가 매진될 정도다. 이번 공연도 연속으로 매진 회차 기록을 이어갔다.

조승우는 탄탄하고 감정선 깊은 연기력과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공연을 보는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는 출중한 실력을 자랑한다. '지킬 앤 하이드'는 기존 뮤지컬 팬 뿐만 아니라 일반 팬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으며 공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장병호기자



서신애, 엄정화·송승헌 딸 됐다

'멋진 악몽'에서 중학생 역 "큰 영광"

아역배우 서신애(사진)가 영화 '멋진 악몽'(가제)에서 엄정화, 송승헌의 딸로 변신한다.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4일 서신애의 영화 출연 소감을 전했다. 서신애는 극중에서 엄정화, 송승헌이 연기하는 연우와 성환 부부의 딸이자 까칠한 중학생인 하늘 역을 맡았다.

서신애는 소속사를 통해 "오랜만의 영화 촬영이라 많이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앞서지만 엄정화 엄마, 송승헌 아빠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 매일 같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웃으면서 촬영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며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하시고 내년에 극장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멋진 악몽'은 외모·재력·능력 모든 것을 갖춘 잘 나가는 싱글 변호사 연우(엄정화)가 갑작스런 사고 후 상상도 못해본 평범한 주부의 삶을 한 달 동안 대신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한편 '멋진 악몽'은 지난 15일 촬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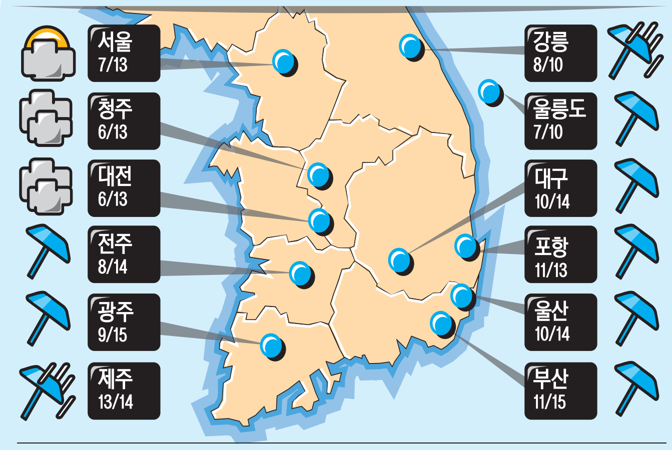
/장병호기자



날씨

11/25 火 일출시각 07:22 일몰시각 17:1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겨울철 바람은 코와 기관지 점막을 수축시켜 호흡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비타민·무기질과 함께 콩·계란·우유 등을 충분히 섭취해 면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6	
				2	4			5
	3	5	1					
8			2	9		5	7	
		3				4		
	2	7		4	5			3
					1	7	9	
1			7	5				
	9			6				

					9		6	7
				3	1			2
						5		
	7	8		6		2	9	
		2		5		8		
	9	3		2		4	5	
		4						
2			6	1				
6	1		3					

스도쿠 정답

4	1	9	5	3	8	2	6	7
6	7	8	9	2	4	3	1	5
2	3	5	1	7	6	9	4	8
8	4	1	2	9	3	5	7	6
5	6	3	8	1	7	4	2	9
9	2	7	6	4	5	1	8	3
3	5	6	4	8	1	7	9	2
1	8	2	7	5	9	6	3	4
7	9	4	3	6	2	8	5	1

3	2	5	4	8	9	1	6	7
7	4	6	5	3	1	9	8	2
9	8	1	2	7	6	5	3	4
5	7	8	1	6	4	2	9	3
4	6	2	9	5	3	8	7	1
1	9	3	8	2	7	4	5	6
8	3	4	7	9	2	6	1	5
2	5	7	6	1	8	3	4	9
6	1	9	3	4	5	7	2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튼튼한 뼈를 만드는 음식들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날씨가 추워지면 뼈가 부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추위에 몸이 굳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빠른 대응을 할 수 없다 보니 별 것 아닌 일에도 넘어져 크게 다치기 쉽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밀도가 낮아진 경우, 살짝 넘어져도 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겨울 내내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약 44% 정도 증가했다. 20대와 20대 미만 골다공증 환자도 11% 증가했다. 과거 노인병이라고 불리던 골다공증이 이제는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량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학회의 권장량은 일일 700~800㎎정도이며 적어도 500㎎은 섭취해야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일일 섭취량은 470㎎ 정도에 불과하다. 우유나 멸치 외의 칼슘식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아는 식품들 중에도 알고 보면 칼슘 함유량이 높은 것들이 많다. 두부·고사리·시래기·무·쑥·무화과·명태·미꾸라지·꼬막·게·새우·건미역·김 등이 100g당 칼슘 함량이 100㎎ 이상인 식품이다. 특히 두부와 미역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 식품이다. 둘 다 칼슘 함유량도 높아 뼈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두부로 인해 빠져나가는 요오드 성분을 미역이 채워준다.

반대로 수산 성분이 많은 시금치나 인 성분이 많은 파는 칼슘 식품과 궁합이 나쁘다. 수산이나 인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특히 시금치는 수산 성분이 많기로 손꼽히는 식품이다. 다행인 것은 수산이 물에 쉽게 녹는다는 것이다. 한번 데쳐주면 수산 함량이 확 줄어든다. 국을 끓이더라도 한번 데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뼈 건강을 위해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햇빛을 받는 것이다. 칼슘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었을 때 체내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식사 후에 평소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거나 일광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교통사고로 장애, 생계가 막막한데 사업하면 실패, 기술직종 찾으세요

Q

인생맛자랑 66년 6월 17일 자시

메트로신문에 김상회선생님의 '사주속으로'를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에서 보고 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저의 고민을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친구 따라 역학원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주의하란 말을 들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정말로 지난 1월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졸지에 장애자가 되고 보니 앞으로 살 길이 막연하지만 제 사주에 사고운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생활도 사주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 여쭙는 것이니 무엇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A

사주는 동양의 자연과학입니다. 팔자타령이나 하는 예정된 운명을 논하는 이론이 아니고 대자연과 소우주인 인간을 연결하는 기 에너지를 논하고 성공과 건강을 만들어가는 운명경영학입니다. 역학의 목적이 흉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즉 피흉추길(避凶追吉)인데 좋다는 괘가 나왔으면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완성해야 하고, 흉하다는 괘가 나왔다면 인내를 가지고 근신하여 수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귀하는 역학 용어로 생일지(태어난 날)에 식신(食神:내가 생해주는오행)과 편인(偏印: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내재되어 언변이 뛰어나고 일의 계획성과 추진력, 기획력이 탁월한데 재성(財星:재물)의 부재로 인해 일의 성과나 재정적인 성취를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를 예고한 것도 오월생(午月生)에 든 급각살(急脚殺)은 다리를 전다는 의미를 지닌 흉살 중 하나인데 또다시 운에서 삼형살(三刑殺이 작용하였으므로 교통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재물운이 침체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직업은 사주팔자와 인연이 있는 종류를 따라야 합니다. 운이 정관(正官:고정적인 직장을 나타냄)으로 가고 있으므로 직장생활처럼 남의 밑에서 일을 해야 생활이 편합니다. 만사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언변이 좋고 기획력이 있으므로 말로서 하는 직업이나 현침살(懸針殺:날카로운 기물을 다루는 것)로서 기술이나 기예방면으로 소질이 있으니 앉아서 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도록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25일 (음 10월 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긴장할 일이 생긴다. **60년생** 흔들리는 마음부터 안정 시켜라. **72년생** 신망이 두터워 지원군이 많다. **84년생** 외압은 적당히 받아들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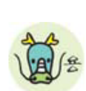
49년생 마음먹은 일은 실행할 것. **61년생** 보이지 않는 사랑을 받는다. **73년생** 어려울수록 적극적 투자 필요~. **85년생** 찜찜한 고민은 해결된다.



50년생 그리운 사람과 해후한다. **62년생** 양보할 땐 확실히 할 것. **74년생** 위기 땐 변해야 탈출할 수 있다. **86년생** 앞서가기보단 함께 가보자.



51년생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라. **63년생** 좋은 길로 인도할 사람 나타난다. **75년생** 오늘보단 내일 생각할 것. **87년생** 연인이 마음을 열어 유쾌하다.



52년생 처음하면 누구나 더듬거린다. **64년생** 가벼운 질문도 진중하게 답할 것. **76년생** 방심하면 아랫사람에 혼쭐난다. **88년생** 감에 의존하는 일처리 말라.



53년생 욕심 부려 고민거리 만들지 말라. **65년생** 생각도 못한 장애물 만난다. **77년생** 헛바퀴만 돌리는 일은 중단할 것. **89년생** 직장인은 역발상이 필요하다.



42년생 마음 바꾸기는 어렵다. **54년생**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생각 버려라. **66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78년생** 변화는 능동적으로 수용할 것.



43년생 아랫사람 허물은 덮어주라. **55년생** 새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다. **67년생** 혜택이 빵빵한 투자는 위험도 큰 법~. **79년생** 주변에 사람이 몰려 어깨 무겁다.



44년생 덕담이 마음을 맑게 한다. **56년생** 마음먹은 일은 강력히 추진하라. **68년생** 인생에 훈장이 될 경사가 생긴다. **80년생** 망신수 있으니 유흥가 출입 삼가라.



45년생 속이 상해도 참아라. **57년생** 풍악이 있는 자리 초대받는다. **69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라. **81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다.



46년생 실언하면 설자리 잃는다. **58년생** 자녀의 경사에 신바람. **70년생** 욕심을 부린 투자는 손해 부른다. **82년생** 조직의 룰에 따라야 만사 편안~.



47년생 경사가 생기니 기대하라. **59년생** 삶에 활력소 될 정보를 얻는다. **71년생** 할 말이 있어도 참는 게 이득~. **83년생** 연인의 마음이 흔들려 괴롭다.

리디아 고, LPGA 마지막 대회 우승

루이스, 3관왕… 박인비는 랭킹 1위 수성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2014시즌 마지막 투어에서 우승했다.

리디아 고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장(파 72·6540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했다. 훌리에타 그라나다(28·파라과이)와 카를로타 시간다(24·스페인)와 동타를 이뤄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공동 5위로 마지막 경기에 나선 리디아 고는 이날 버디만 4개를 기록하며 선두 그룹과의 타수를 줄였고 결국 역전에 성공했다. 18번 홀에서 계속된 연장전 끝에 리디아 고는 네 번째 승부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리디아 고는 파를 기록해 보기에 그친 시간다를 따돌리고 시즌 최종전의 우승자가 됐다. 그라나다는 연장 두 번째 홀에서 탈락했다.

리디아 고는 이 대회 우승 상금 50만 달러와 '레이스 투 더 CME 글로브' 우승 보너스 100만 달러를 더해 150만 달러(한화 약 16억7000만원)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 이로써 시즌 상금 208만 달러로 스테이시 루이스(253만 달러), 박인비(222만 달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아마추어 자격으로 이미 2012년과 2013년 캐나다오픈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낸 리디아 고는 LPGA에 데뷔한 올해 3승을 쓸어담으며 최연소 신인왕에 오르는 영예도 누렸다.

루이스는 이번 대회 최종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9위에 오르며 상금과 평균 타수, 올해의 선수 등 3관왕을 차지했다. 루이스는 지난 2012년에도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으나 당시에는 상금과 평균 타수 부문을 박인비(26·KB금융그룹)에게 내준 바 있다.

박인비는 이 대회에서 이븐파 288타로 공동 24위에 그치며 이번 시즌 루이스에게 주요 부문 타이틀을 내줬으나 세계 랭킹 1위 자리는 지켰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다가 미국 무대에서 우승 소식을 전한 김효주(19·롯데)와 백규정(19·CJ오쇼핑)의 활약도 빛났다. 김효주는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백규정은 국내에서 열린 하나·외환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2015시즌 미국 무대에서 신인왕 타이틀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LPGA 투어의 내년 시즌은 1월 2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코츠 챔피언십으로 막을 올린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루이스 해밀턴 '가장 빠른 드라이버'

F1… 로즈버그 제치고 챔피언 등극



루이스 해밀턴(영국·메르세데스·사진)이 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원(F1) 그랑프리 2014 시즌 챔피언에 등극했다.

해밀턴은 23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야스 마리나 서킷(한 바퀴 5.554㎞)에서 열린 2014 F1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55바퀴(총 305.470㎞)를 참가선수 중 가장 빠른 1시간39초02초619를 기록하며 돌았다. 팀 동료 니코 로즈버그(독일)의 추격을 따돌린 해밀턴은 올 시즌 19차례 그랑프리 가운데 11승을 챙기며 2008년 이후 생애 두 번째 월드 챔피언의 영예를 안았다.

해밀턴은 2~5차전 연달아 4연승을 달성했다. 하지만 로즈버그는 꾸준한 성적으로 매번 순위권에는 들었으나 네 차례 그랑프리에서 매번 2위를 차지했다.

해밀턴은 F1 사상 최초의 흑인 드라이버로 2007년 데뷔했다. 데뷔 첫해 2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고 이듬해 23세 9개월의 나이로 정상에 오르며 당시 역대 최연소 챔피언이 되는 기염을 토했다. 'F1계의 타이거 우즈'라는 평가를 받았고 F1의 전설 미하엘 슈마허 은퇴 이후 F1의 간판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2010년 23세 4개월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2013년까지 4년 연속 챔피언에 올라 새로운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다. 페텔과 팀 레드불이 올해부터 적용된 새로운 기술 규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이 해밀턴은 로즈버그와 함께 팀 메르세데스의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팀 부문인 컨스트럭터 부문에서는 해밀턴과 로즈버그를 앞세운 메르세데스가 701점을 획득하며 레드불(405점)을 따돌리고 왕좌에 올랐다.

/김학철기자

선수의 꿈 vs 구단의 현실론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미국 구단끼리 담합하는거 아닌가?"

지난 24일 미야자키 휴가 마무리 캠프에서 양현종의 메이저리그 포스팅시스템(비공개입찰) 결과를 KBO를 통해 받아본 허영택 KIA 단장의 첫 마디였다. 양현종의 최고액 입찰가는 150만 달러였다. SK 김광현(200만 달러) 보다 적자 크게 실망한 얼굴이었다.

포스팅을 앞두고 현지 언론들은 500만 달러까지 거론하면서 군불을 땠다. 대개 미국 언론들이 후한 평가를 내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현지 구단 관계자나 스카우트들의 평가를 토대로 기사 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분위기는 일찍부터 감지됐다. 메이저리그는 일본 투수들의 최고가를 2000만 달러로 묶는 신 포스팅시스템을 작년에 적용했다. 다나카 마사히로를 양키스로 보낸 라쿠텐은 여기에 막혀 예전 같으면 5000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통에 한국투수들의 이적료도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헐값에 에이스를 유출하게 생긴 KIA는 수용을 고려했지만 도저히 안되겠는지 양현종을 잔류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그러지 않아도 양현종 공백으로 인해 치명상이 생기는 마당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보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이 간다. 신생구단 kt는 9개 구단을 상대로 전력보강을 위해 특별지명을 한다. 각 구단의 보호선수(20명)를 제외하고 한 명씩 뽑는다. 한 명당 몸값이 10억 원이다. 양현종이 특별지명을 받은 선수도 아닌데 너무 몸값을 후려쳤다는 것이다.

양현종은 구단에게 포스팅을 수용하기를 청했다. 꿈꿔온 미국 무대에서 공을 던지고 싶은 것이다. 필연적으로 설득하려는 구단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수용 여부를 통보하는 27일 안에 결론이 난다. 선수의 꿈과 구단의 현실에서 파열음이 날 수 있다. 결론이 무엇이든 양쪽 모두 내상을 입을 것 같다.

/OSEN 야구전문기자

프로농구 전적 24일

삼성	18	23	19	13	73
LG	21	18	21	24	84

프로배구 전적 24일

현대건설	3	2	GS칼텍스
한국전력	3	0	우리카드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